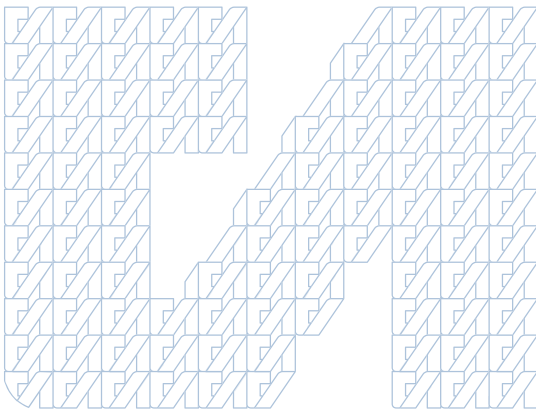


# 세종학 시민참여 제고를 위한 기본구상과 실천전략

이재민 외



**연구책임**

• 이재민 /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공동연구**

- 한상헌 / 경제산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고순영 / 지역앤사람연구소 소장
- 유용환 / 선택인문연구소 소장

**연구지원**

• 송다빈 / 세종연구실 위촉연구원

정책연구 2023-59

**세종학 시민참여 제고를 위한  
기본구상과 실천전략**

발행인 김영진

발행일 2023.11.30.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 37(문지동)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 쇄 (주)경성문화사 TEL 044-868-3537 (FAX: 044-868-3565)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 요약 및 정책 제언

## 1.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학, 세종학

- 세종학진흥조례가 2018년 제정 이후, 자문기구로서 세종학진흥위원회, 전문거점 기관으로서 대전세종연구원 지역학연구센터 등이 만들어지면 세종시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학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하지만 다년간 세종학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인식이 부족하여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
- 이 같은 상황에서 연구는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에서 지역학이 지속가능성과 효능감을 이끌기 위해서는 시민 인식확산 및 참여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자 함
- 따라서 이 연구는 지역학 연구와 활동이 시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스토리텔링’과 같은 변주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고찰하고자 하였음

## 2. 지역학 분야에서 시민참여와 활동 유형

- 지역학은 지역정체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활동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주체의 능동적인 활동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학에서의 시민참여는 매우 중요함
- 지역학의 주요 속성으로 장소성·특수성·관계성·정체성·다양성 등으로 지역학의 성패요인을 결정하는 것은 관계성이라 할 수 있음
  - 관계성은 중앙정부-지역-시민의 관계 속성을 의미하며, 이러한 관계성이 효율적이며 유기적인 특성을 가질 때 비로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음
- 지역학 연구·활동의 유형으로 지역의 가치연구, 콘텐츠 생산·활용, 시민 공유, 지역자료 플랫폼, 지역 거버넌스 등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지역의 가치연구) 연구보고서 및 총서 발간, 학술대회, 세미나
  - (콘텐츠 생산·활용) 지역문화콘텐츠, 콘텐츠 산업과 연관
  - (시민 공유)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
  - (지역자료 플랫폼) 아카이브 구축, 디지털 라키비움 등
  - (지역 거버넌스) 유관기관 네트워크
- 지역학에서의 시민참여 활동은 대개 연구와 활용 분야로 나타날 수 있음
- 연구분야에서는 연구 확장을 통한 신진 연구자 양성, 지역 시민 연구 모임 활성화, 지역학 네트워크 구축과 시민 연계,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학 아카이브 구축 등으로 나타남
  - 활용분야에서는 지역학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민 연구자 위촉과 지역학 정책 개발 참여, 시민소통의 광장 등으로 나타남

### 3. 지역학 활용방안으로서 스토리텔링

- 이 연구에서는 지역학 소재가 시민 공감을 이끌기 위한 방안으로 스토리텔링을 논의하였음
- 스토리텔링은 1990년대 중반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하였고,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다양한 분야를 넘어 일상의 영역으로 확대가 됨
- 지역학에서의 스토리텔링은 이의 매개로서 지역과 결합하는 것으로서, 공간텍스트의 맥락분석 → 장소성 파악 → 테마 설정 및 이야기 부여 단계 → 공간구성 등으로 이루어짐

### 4. 시민 인식확산을 위한 지역학 활동 사례

- 지금까지의 국내 사례 중 많은 부분이 기록과 관련한 활동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음
- 서울기록원, 공주학, 증평기록관, 춘천학 등에서 기록가 양성과정을 통해 많은 시민 기록가들이 나타나고 있었음

-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 ‘작은연구 좋은 서울 지원사업’으로 시민들이 직접 연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연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음
- 세종학 사례중에서는 온전히 지역학 사례라고 할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지역의 소재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활동을 해 왔음
- 세종시 화가 장욱진, 일본인 독립운동가 가네코후미코의 서사를 활용한 연극콘텐츠, 지역에 깃들여 있는 설화를 활용하여 가무악극 등으로 구현하여 시민 인식 확대를 해왔음

## 5. 세종학, 시민 참여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될까?

### □ 세종학 스토리텔링의 추진 과정 제안

- (1단계) 세종 지역 내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자원 발굴
- (2단계) 발굴된 지역학 소재 목록화
- (3단계) 스토리텔링 과정을 통한 이야기로의 변환
- (4단계)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통한 이야기의 아카이브화
- (5단계) 콘텐츠 구현을 통한 시민소통과 참여제고

### □ 세종학 스토리텔링 기본구상

- (비전과 목표) 세종학 시민 참여를 위한 기본구상 중 비전으로 [세종시 일상에서 누리는 ‘시민 세종학’]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목표로서 지역학으로서 세종학, 시민공감 스토리텔링 으로 제안하고자 함
- 이를 수립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가족 대상 지역학 콘텐츠, 이야기 자원 활용 전략, 지역학으로서 세종학 연계 교육 전략, 지역학 인력양성 으로 제안하였으며, 전략별 세부사업은 아래와 같음
  - (가족 대상 지역학 콘텐츠) 세종학 주간 운영, 세종학 가족 대상 콘텐츠 개발
  - (이야기 자원 활용 전략) 세종학 소재(IP) 발굴 공모전, 이야기 자원

아카이브

- (지역학 교육·연구) 초등학교 세종학 교육 강화, 세종학 작은연구
- (지역학 인력 양성) 시민 세종학자 양성, 시민 세종학 프로그램

## 6. 세종학 시민참여를 이루기 위한 정책 제안

- 세종학 시민참여를 이루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세종학 생태계가 튼튼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을 단기 과제로 제안하고자 함
  - (조례 개정) 대전세종연구원 지역학연구센터가 2024년에 세종학센터·대전학센터로 분리될 예정이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함
  - (예산 증액)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세종학 관련 업무를 출자 출현 금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효율적 운영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2024년 분리될 세종학센터의 로드맵을 그리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 세종학 유관기관의 거점역학과 조사·연구, 시민소통 활동이 기대되는 세종학센터의 비전과 전략, 전략별 세부과제, 로드맵 등의 내용을 담은 연구과제가 요구됨

# 차 례

<b>1장 서론</b> .....	1
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3
2절 연구목적과 기대효과 .....	6
3절 선행연구, 세종학 .....	7
4절 연구방법 .....	9
<b>2장 지역학과 시민참여에 관한 논의</b> .....	11
1절 지역학과 시민참여의 중요성 .....	13
2절 지역학을 위한 시민참여 활동 유형 .....	21
3절 지역학 활용방안으로서 스토리텔링 .....	26
<b>3장 시민참여 지역학과 스토리텔링 사례</b> .....	31
1절 시민참여 지역학 교육 사례 .....	33
<b>4장 시민참여 제고를 위한 세종학 기본구상</b> .....	39
1절 세종학 시민 참여 제고를 위한 기본구상 .....	41
2절 세종학 시민 참여 제고를 위한 전략과 과제 .....	57
3절 세종학 실무를 위한 로드맵 제안 .....	70
<b>5장 결론</b> .....	73
1절 연구결과의 종합 .....	75
2절 세종학 시민참여를 이루기 위한 정책 제안 .....	79
<b>참고문헌</b> .....	80
<b>부 록</b> .....	81

## 표 차례

[표 2-1] 국내 학자들의 지역학 개념 정리표 .....	13
[표 2-2] 지역학 속성 관계도 .....	15
[표 4-1] 콘텐츠 창작자 IP 발굴 지원사업 충남 사례 .....	47
[표 4-2] 콘텐츠 창작 IP 발굴 지원사업 충남 사례 .....	59

##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방법 .....	9
〈그림 2-1〉 지역학 연구 목적 .....	14
〈그림 2-2〉 지역학 연구활동의 유형 .....	18
〈그림 3-1〉 서울기록원 기록활동가 양성과정 교육 .....	33
〈그림 3-2〉 공주학 시민기록활동가-공일기 .....	34
〈그림 3-3〉 증평기록관의 증평기록가 .....	35
〈그림 3-4〉 춘천학 -시민기록단 구술채록 .....	36
〈그림 3-5〉 서울연구원-작은연구 지원사업 .....	37
〈그림 4-1〉 비전 구상도 .....	41
〈그림 4-2〉 스토리텔링 추진과정 .....	46
〈그림 4-3〉 이치피디아 홈페이지 화면 .....	49
〈그림 4-4〉 스토리텔링 유형 .....	53
〈그림 4-5〉 길 위의 자화상 홍보 포스터 .....	55
〈그림 4-6〉 연극 〈스물 셋 박문자〉의 공연 모습 .....	56
〈그림 4-7〉 실경뮤지컬 퇴계연가 사례 .....	61
〈그림 4-8〉 구포 1919 공연 사례 .....	61
〈그림 4-9〉 퓨전국악그룹 '풍류'의 공연 모습 .....	62
〈그림 4-10〉 전국향토문화공모전 .....	63
〈그림 4-11〉 스토리텔링 공모전 포스터 .....	63
〈그림 4-12〉 마을기록문화관 .....	64
〈그림 4-13〉 사이버향토박물관 누리집 화면 .....	64
〈그림 4-14〉 세종학 동영상 강의 오프닝 화면 .....	66
〈그림 4-15〉 서울연구원 작은연구 사례 .....	67
〈그림 4-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례 .....	67

〈그림 4-17〉 2023년 대제학 심사 .....	69
〈그림 4-18〉 세종학 실무를 위한 로드맵 제안 .....	71
〈그림 부록1-1〉 세종시 문화유산 이야기 자원 .....	81
〈그림 부록1-2〉 세종시 설화 이야기 자원 .....	84



## 서론

- 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절 연구목적과 기대효과
- 3절 선행연구, 세종학
- 4절 연구방법



# 1장 서론

## 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 지역학 연구·활동의 필요성과 가치

- 지역의 정체성 쇠퇴 및 지역 소멸에 따른 필요성과 가치
  - 산업화 이후 초래된 회색빛 아파트의 양산으로 인해 나타난 문화적 획일화·물개성화 현상의 가속화는 지역적 색채가 희미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최근에는 인구감소로 인해 수도권과 특정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서는 지역 쇠퇴가 나타나며, 지역이 소멸한다는 이론이 나타나기도 함
  - 지역학은 지역정체성의 구현과 정립이라는 본질적 목표와 함께 이 같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가치와 의미가 있음

### 2. 세종시에서의 지역학 활동

- 세종시는 2019년 이후 도시 정체성 구현 기제로서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세종학’을 진행하고자 했으며 다양한 실천을 통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 2019년 1월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의 발의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적인 기반을 확보함
  - 세종시에서는 지역학으로서 세종학 자문기구로서 ‘세종학진흥위원회’를 구성함
  -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와 연합하여 ‘세종의 재발견’이라는 시민·학생 대상의 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함
  - 2019년 10월 세종시 정례브리핑(제256회)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도시정체성 구현을 위해 ‘세종학 진흥계획’을 발표함

### 3. 대전세종연구원에서의 지역학 연구와 활동

#### □ 정책연구 진행

- 『지역학으로서 세종학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이재민 외, 2020)』
  - 세종학의 목표, 범위와 추진주체,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였음
- 『지역학으로서 세종학 비전체계와 추진전략 고찰』
  - 세종학을 에워싸고 있는 외부적 상황과, 세종학 내부의 상황을 비교분석하여, 비전과 목표를 포함하는 비전체계와 추진전략을 고찰하였음

#### □ 세종학 논의의 장으로서 포럼과 세미나

- 세종학포럼 : 지역학으로서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세종학포럼’을 3회차 진행하였음
  - (1회차) 새로운 실험의 무대 세종시, 삶의 장소로서 미래를 그리다(2019.11)
  - (2회차) 지역학의 의미와 세종학의 의의-세종시 과거·현재·미래를 중심으로(2021.21)
  - (3회차) 세종학 ‘새로움’에 ‘특별함’을 더하다(2022.12)
- 세종학세미나 : 세종학의 정체성 구현을 위해 주변 지역 사례 고찰
  - (1회차) 지역학 교육, 지역문화아카이브 사례 고찰(2022.06)
  - (2회차) 천년 역사인물로 조망하는 세종의 미래(2023.06)

#### 4. 세종학 활동을 진행했음에도, 시민들은 아직 ‘가우뚱?’

- 세종시는 대전세종연구원(지역학연구센터),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함께 세종학과 관련한 강의, 포럼, 세미나, 연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민들은 세종학에 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태임
  - 게다가 세종지역의 역사적 배경, 세종시의 출범과 당면과제 등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여실히 떨어지고 있음

#### 5. 세종학에 관한 시민참여 중심의 지역학 확산이 필요

- 세종시는 출범 11주년을 맞이하고, 2030년 도시의 완성을 목표로 현재에도 건설 중인 곳인 만큼 지역학으로서 세종학에 관한 시민 인식확산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당위가 있음
- 더욱이 대전세종연구원의 정책과제(이재민·한상현·황혜란, 2022)의 연구에서도 세종학 비전체계를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서 ‘시민참여 중심의 지역학 확산’을 제시하였음
  - 이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세종시의 도시 건설이 지나치게 국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상향식(Bottom-up)의 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 특히 지역학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 지속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아마추어리즘에 근거한 지역학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음

## 2절 연구목적과 기대효과

- 수년 차 맞는 세종학, 이제는 시민이 알아야 한다.
  - 조례제정 이후 수년 차 맞는 세종학 연구와 활동이 행정기관과 연구기관만의 활동이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세종학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하지만, 지역학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재미가 없다.
  - 분명 지역학은 분과학문이라기 보다는 실용적이면서 정책적인 목적으로 진행되는 학제간 연구의 경향을 취하는 학문의 형태임
    - 이같이 학문의 형태인 지역학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참여를 이루기 위함은 매우 어려움
  
- 그렇다면, 스토리텔링을 제안하고자 한다.
  - 이 같은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지역학 자원·소재의 스토리텔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스토리텔링의 과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기본구상, 즉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별 세부과제 등을 도출하고자 함
  
- 시민 지역학으로서 세종학, 진정으로 시민과 함께하기를 기대해 본다.
  -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과정과 구상을 통해 지역학으로서 세종학이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학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3절 선행연구, 세종학

#### 1. 세종학 선행연구 고찰

- 지역학으로서 세종학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2020, 이재민 외)
  - 지역학 전개와 개념, 지역학 연구의 가치 고찰
  - 지역학 연구기관 사례조사 : 37곳의 연구기관 사례 조사
  - 세종학 추진 현황
    - 세종지역을 연구했던 문헌 자료(단행본 126편, 논문 98편, 보고서 61 참여편, 멀티미디어 자료 13편)
  - 세종학 연구 추진방안
    - (Who) 지역학 연구 전문기관의 설립
    - (Where) 세종시 모든 공간 영역을 대상
    - (What) 지역학 정립 및 진흥활동
    - (How) 학제간 연구 및 총체적인 관점 필요
  
- 대전·세종 상생을 위한 지역학 연구 방향설정과 아젠다 발굴(2021. 이재민 외)
  - 지역학 연구의 흐름과 대전·세종의 지역학 동향 분석
  - 대전세종지역학 연구의 방향 인식 (AHP)
    - 지역학의 대상과 범주
      - ① 연구범위 : 특광역시 단위 대지역 중심 (.611) > 읍면동 단위 소지역 중심(.389)
      - ② 가치지향 : 대전시·세종시의 개별적 고유성 탐구(.644) > 대전세종의 통합적 미래정체성 모색 (.356)
      - ③ 연구 목표 : 인문가치 발굴 확산(.747) > 정책적 문제 해결(.253)
      - ④ 활동 주체 : 전문 연구자 중심(.612) > 시민의 적극적 참여(.388)

- 지역학 연구활동 유형별 중요도  
교육 사업(.238) > 상시적 연구활동(.224) > 홍보와네트워킹(.199) >  
공식적학술활동(.181) > 연구결과물 도출(.158)

□ 지역학으로서 세종학 비전체계와 추진전략 고찰(2022. 이재민 외)

- 지역학 연구를 1.0~3.0으로 흐름 고찰
- 세종학 비전체계와 추진전략
  - 세종학 비전을 “포용적 미래가치를 함께 만드는 세종학”으로 설정하였으며, 비에 담을 핵심가치로는 ‘정체성의 공유’, ‘공동체적 연대’, ‘균형발전 견인’, ‘다양성의 포용’, ‘참여하는 미래’로 설정함
  - 세종학이 달성하는 목표는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융합적 연구’와 ‘시민이 함께 공감하는 정체성 형성’으로 설정하였으며, 추진전략으로 아래와 같이 설정함
    - ① 다양한 지역 자원의 전략적 활용
    - ②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균형적 탐구
    - ③ 시민참여 중심의 지역학 확산
    - ④ 연구, 활동 거점으로 지역학연구센터의 역할 정립’으로 설정하고자 함

## 2. 이 연구의 차별점

□ 시민 인식확산·참여를 위한 세종학 구축 연구

- 지금까지 수행된 선행 연구가 지역학으로서 시작과 착수단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계획과 관련한 연구였다면, 이 연구는 실제 사업을 시민 확산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의 성격이라 할 수 있음



## 4절 연구방법

-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방법으로 현장연구와 문헌연구를 병행하고자 함



〈그림 1-1〉 연구방법

### □ 현장연구

- 세종시 이야기 자원이 스며든 현장답사 및 관련자 심층 인터뷰 진행
  - 세종시 문화원 향토사연구소, 향토사가, 박물관, 무형문화재 등의 인터뷰
  - 이야기 자원에 관한 실측 조사(개략), 사진 및 영상촬영 등

### □ 문헌연구

- 지역학 및 이야기 관련 문헌 자료 탐구
  - 연기군지, 디지털세종시문화대전, 각 읍면지, 한국구비문학대계, 세종민속문화의 해 사업 보고서, 각 마을지 및 민속지 등



## 지역학과 시민참여에 관한 논의

- 1절 지역학과 시민참여의 중요성
- 2절 지역학을 위한 시민참여 활동 유형
- 3절 지역학 활용방안으로서 스토리텔링

## 2장



## 2장 지역학과 시민참여에 관한 논의

### 1절 지역학과 시민참여의 중요성

#### 1. 지역학의 개념과 연구목적

##### 1) 지역학의 개념

- 지역은 ‘문화의 기본 단위’ 이자 ‘실질적 생활 문화로서 다양성의 구현장’임
- 지역학이란 특정 지역을 이해하려는 목적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융합적·총체적으로 전개하는 모든 학술적 활동으로 정리되고 있음

[표 2-1] 국내 학자들의 지역학 개념 정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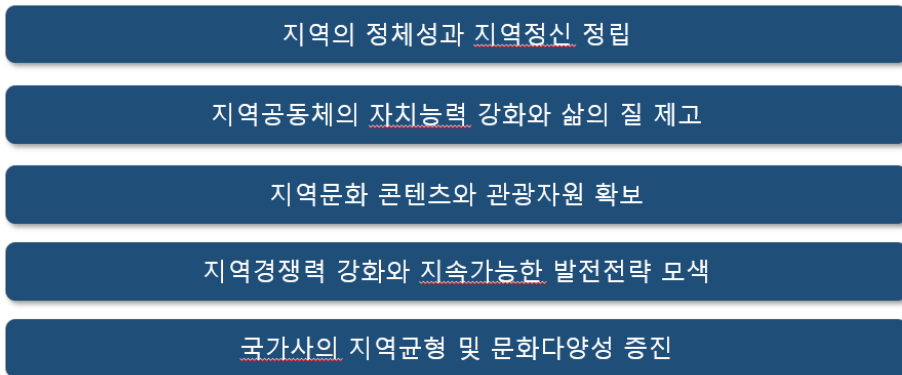
학자	정의 내용
황달기	특정문화를 공유하는 지역 전체의 모습을 얻기 위해 모든 분과학문의 역량과 기능을 해당 지역에 집중하는 학문
하병주	인문과학, 사회과학 혹은 지역의 성립과 지역에 거주하는 인간의 생업 또는 그 지역의 전체적인 관점으로 분석을 시도하는 학술연구
이규태	각 지방에서 전승되는 역사와 문화, 지방발전전략 등의 여러 현안을 학문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분석하는 학문(지방학)
송인호	장소가 가진 역사를 기록하고 그 의미를 새기는 작업으로, 역사·문화·철학·지리·사회·도시·건축·조경분야의 학제 간 연구를 통하여 고찰하는 융합학
김학훈	지역 및 공간과 관련하는 주제에 대해 객관적·과학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학제적 학문
박찬식	일정한 공간의 영역을 토대로 연구대상을 설정하고, 학제적 또는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 출처 : 이재민 외, 지역학으로서 세종학 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

- 현재의 지역학은 각 지역마다 ‘지역정체성 확립’ 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포괄적인 시간적·공간적·학제적 맥락 속에서 **그 지역민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연구하는** 한국학의 일부이자 지역 향토학의 집합으로 시행되고 있음
- 나아가, 지역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경험과 지식들을 지역의 구성요소인 ‘**현대의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지혜로 재생시키고, 지역민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그 기반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으로 연결**’되고 있음

## 2) 지역학 연구의 목적

- 지역 자원을 찾아내 지역발전에 초석으로 삼고, 지역민에게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공동체를 강화시키는 것을 말함. 세부적으로 지역학 연구의 목적은 아래의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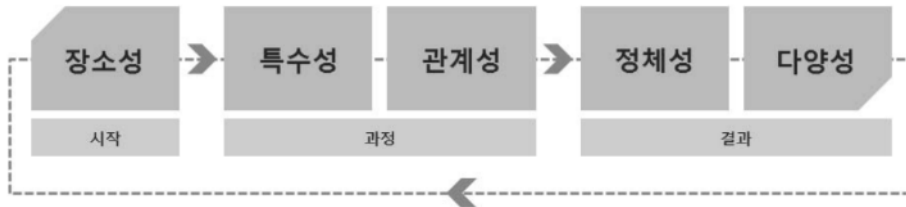
〈그림 2-1〉 지역학 연구 목적

## 2. 지역학의 속성과 연구활동의 유형

### 1) 지역학의 속성과 시민 관계성의 중요

- 지역학을 이루는 학문적 속성으로 장소성, 특수성, 관계성, 정체성, 다양성 5가지가 있음
- 지역학은 특정 지역을 의미하는 ‘장소성’에서 시작하여, 지역의 독특하고 고유한 ‘특수성’과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간의 ‘관계성’의 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문화의 ‘다양성’이 표출됨

[표 2-2] 지역학 속성 관계도



※ 출처: 정정숙,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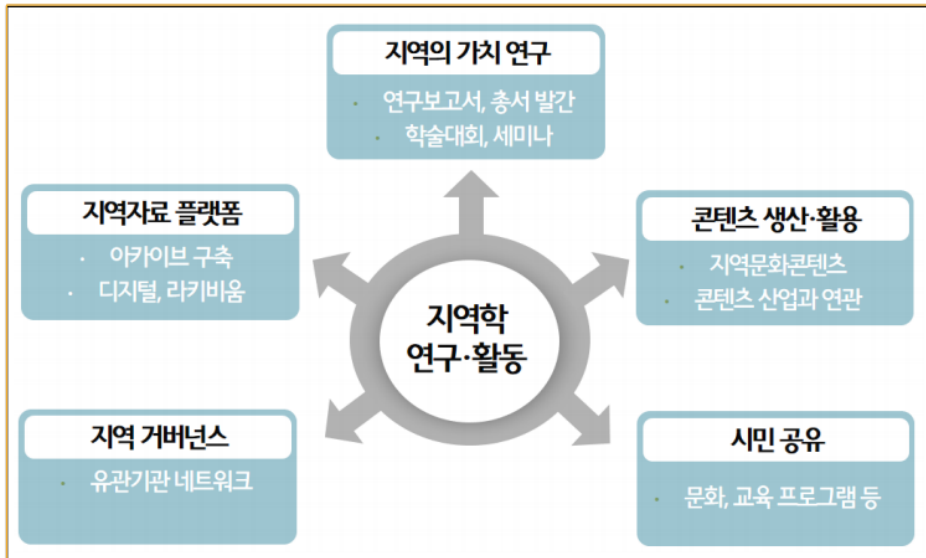
- 현재, 각 지역마다 유사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학에서 해당 지역의 과거,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서 지역학 연구의 성패를 가를 만큼 **‘지역민(시민) 혹은 주변지역·중앙정부와 맺고 추진할 관계성이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
- 특히, 지역학 연구 결과는 **지역민(시민)의 고유한 지역 정체성을 인식하고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민 스스로 지역학 정립과 확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과 연결되어 ‘관계성’은 어느 것 보다 중요한 속성으로 고려되고 있음

## 2) 지역학 연구·활동의 유형

-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다학제적(多學際的) 연구활동** 추진
  - 지역학은 지역과 관련해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 등 학문의 큰 범주를 넘나들고, 미시·거시적인 접근을 포괄하여 총체적인 학문 영역간 협력 활동까지 추진하여 지역연구 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이 되고 있음
  -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보고서 및 지역학 연구총서, 자료총서, 교양총서, 기획총서 등의 학술총서 형태로 그 성과가 도출되고 있음
  -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형태로 발전되기도 함
- 지역 기초자원 확보 및 공유를 위한 **‘지역 자료 플랫폼 공간’** 구축
  - 지역학 연구의 토대 마련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다양한 기초자료(자원) 확보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여러 지역에서 지역학 아카이브(또는 지역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음
  - 연구성과와 확보된 자원의 보존, 그리고 대국민 공유를 위한 지역 자료 플랫폼 공간을 구축하여, 최근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아카이브’로서 시민문화 향유공간’이라는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음
  - 온라인 공간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아카이브’로 구현되며, 오프라인에서는 시민들이 도서, 기록물, 문화예술품 등 다양한 형태의 자원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복합기능을 강조한 라키비움 형태’의 아카이브가 구현되고 있음
-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과 산업으로서 활용·연계
  - 현장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기초자원과 지역학 연구성과를 접목해 재가공함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지역학 성과 도출
  - 지역학의 대중화를 위해 스토리텔링 기법, 디지털 기술 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문화 콘텐츠개발 산업으로 확장 가능성 내포
  - 지역학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제로 연결 및 수행



- 지역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문화의 중심축 역할
  - 지역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 지역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시민 등과 연계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거버넌스 형태의 지역중심축을 구현함
  - 전국의 지역학 연구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를 통해 연구영역과 이해를 확장함
- 지역학 시민공유와 참여·협력 도모
  - 지역학 연구성과를 토대로 구성원인 지역민(시민)에게 정체성을 함양시키고 애향심을 향상시켜 지역의 주체로서 시민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고 소통하는 활동을 가리킴
  - 주로 특강, 아카데미 등의 교육프로그램과 전시회 등 문화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지역학 연구소식을 전하는 지역학 뉴스레터, SNS 운영으로 빠르게 지역학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음
  - 최근에는 지역민(시민)을 지역학 공유대상에서 ‘지역학 연구 주체’로 함께 참여·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는 추세임



〈그림 2-2〉 지역학 연구활동의 유형

※ 출처 : 이재민 외, 지역학으로서 세종학 비전체계와 추진전략

### 3. 지역학 주체와 시민의 참여 확대

#### 1) 지역학 운영 주체의 다양화

-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학 연구 운영 주체는 크게 대학 소속 연구시설, 지자체 소속 연구기관 및 문화재단, 지역민간기관인 지역문화원과 학회 등으로 구분됨
-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풀을 갖추고 있는 지역거점 대학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출연·육성한 출연 연구기관이 지역학 연구를 위해 선도적으로 지역학 연구와 발전을 위해 활동해 옴
- 2020년 정책 연구에서 전국의 지역학 연구 기관의 현황 도출 결과, 대학기관 내 16개, 지방자치단체 연구원 내 21개, 민간기관(문화원, 학회) 5개로 나타남
- 지역학 연구의 융성에 따라 최근 각 지역 시군 소재 문화원, 또는 수도권

의 경우 구(區)단위 문화원에서 부설 향토연구소를 설립해 지역문화 정체성 정립, 지역 가치의 재발견,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연구 중요성을 이유로 '지역학연구소' 로 확대 편성하여 지역학을 연구 및 운영하고 있음

- 지역문화원은 주로 자기 고장의 문화를 조사·보고하고 보존 및 전승, 선양하는 활동을 하는 지역민들이 모인 곳으로, 대부분 향토사가 또는 지역에 관심이 많은 비전공자(비전문가)들이 주요 역할을 하고 있음
- 지역문화원이 지역학 운영의 주체로 점차 부각되고 있는 것은 그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보여짐. 그동안의 대학 및 지자체 소속 연구기관이 중심이 된 지역학에서 '**민간중심 운영의 지역학 연구**'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시민참여의 범위가 점차 확대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 2) 지역학 연구·활용의 주체와 시민의 역할

- 지역학은 추진단계에 따라 크게 연구와 활용(서비스)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연구는 지역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물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활용은 이미 도출된 지역학 연구성과를 관광, 산업,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화콘텐츠로 가공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지역학의 참여자로는 연구자와 지역민(시민)으로 나눌 수 있음. 연구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과 같은 전문 연구자가 있고, 지역민은 시민뿐만 아니라 향토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교육자, 언론인 등을 포괄함
- 연구·활용 주체는 참여 형태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먼저, 연구자가 지역학 연구의 주체가 되어 지역학을 연구·대중화하고 지역민들을 활용의 주체로 설정하거나 또는 별도로 활용의 주체를 설정하지 않는 형태가 일반적임
  - 이와 관련된 충청도 지역의 지역학 사례로 대전학, 홍성학, 충청학, 충남학, 예산학, 천안학 등이 있음
- 그러나 최근에는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져 연구자 뿐 아니라 지역민도 함께 지역학 연구와 활용의 주체가 되는 형태의 지역학 진흥이

### 이루어지고 있음

- 이와 관련된 충청도 지역의 지역학 사례로 충북학, 공주학, 서천학, 청주학 등이 있음
- 지역학에서 시민의 역할은 일시적인 지원의 대상, 교육을 받고 향유하는 지역학 수요의 대상, 지역민의 삶을 탐구하는 연구의 대상에서 점차 지역학 연구 활동의 주체, 활용의 주체로 주목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춘 실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3) 시민참여 확산의 효과와 기대

- 지역학은 지역민이 지역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기 문화의 실체와 특성을 이해하고 지역에 관한 시민의식을 고양하게 해 줌
-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학을 통해 시민 스스로 지역의 고유하고 특수한 자원을 찾아 계승·활용하고 특화할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함
- 시민 협력과 참여로 편향적일 수 있는 지역학의 단점을 보완하고 분야별 전문적인 벽을 허물어 통합적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음
- ‘지역학에 참여하는 시민, 지역학 주체로서의 시민’을 양성해 시민참여와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
-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지역학 구축이 가능해짐

## 2절 지역학을 위한 시민참여 활동 유형

### 1. 지역학 연구분야

#### 1) 지역학 연구 개방(확장) 및 신진 연구자 양성

- 지역학의 학문적 정립과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나 연구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외연 확장을 통해 지역학 연구 성과의 체계적인 축적을 도모하는 유형
  - ‘지역학 양서지원 사업’, ‘지역학연구 논문 공모’ 등 지역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국내외 대학(원), 재(휴)학생, 공무원, 일반인 등 지역과 지역문화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참여율을 높임
  - ‘올해의 향토사가’, ‘우리 지역을 빛낸 지역전문가’ 등과 같이 지역에서 자기 고장의 문화를 조사하고 보존 및 전승, 선양하는 활동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향토사가 또는 준전문가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
- 지역학과 지역문화를 전문 분야로 하는 신진 연구자를 발굴해 이들의 활동을 지원 및 장려하고, 지역학 연구의 양적·질적 확장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유형
  -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생,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양성’,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 을 통해 지역학 연구진흥을 추진함

#### 2) 지역시민 연구모임 활성화

- 지역 내 자발적으로 생성된 각 분야별 연구모임, 학습동아리 등을 활성화하여 지역문화와 지역학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함. 근래에는 통합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학, 인문학, 문화·예술, 교육, 환경 등 다제학적인 시민자치적 모임이 생성되고 있음
- 지역민(시민)의 자발적·지속적 학습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성장과 지역

학습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여 지역학 진흥에 기여가 가능해짐

- ‘지역학 학습동아리’, ‘공부모임’, ‘시민연구모임’ 등의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연구모임을 지원하거나 인솔함
- 학습동아리, 작은 시민연구모임이 확장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협동조합, 비영리적 사단법인화 되는 사례도 있음

### 3) 지역학 네트워크 구축과 시민 연계

- 지역학의 영역은 광범위하고, 모든 학문을 아우르는 최상위층에 있어 반드시 전문 분야를 초월한 정보 교환이 필요하므로 분야별·계층별, 그리고 통합적인 협력 연계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유형
- 지역학에서는 반드시 지역학 관련 기관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므로 ‘지역학 중심 연구기관-지역행정기관-지역민’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전문성을 가진 지역민 중심의 ‘지역학 시민네트워크’, ‘지역학시민협의체’ 등을 동시에 구축하고 지원함
- 시민과 연계한 인적인프라 구축으로 실제적인 지역학 연구의 증진이 가능해지고, 연구자와 지역민간 교류활성화로 이어져 지역학 연구 활동의 활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4)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학 아카이브 구축

- 지역학 아카이브 구축은 지역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 분석하는 것으로 지역학 연구의 토대 마련과 지역민을 포함한 대국민 공유라는 측면에서 지역학의 핵심 과제로 여겨 모든 지역학에서 구축 및 시행하려고 하는 유형
-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역학을 지향하고, 숨어있는 지역 자료를 발굴하고 정리하여 공유하는 만큼 지역민의 협력과 참여가 필수불가결함.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정리-서비스-활용’이라는 모든 단계마다 시민참여 아카이브 실현이 가능함
- 아카이브 수집 및 정리 부문 : 지역자료 수집 확대를 위해 지역민(시

- 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이 실현되고 있음
- 지역민 또는 대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학 자료 공모전’, ‘○○ 옛 사진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지역자료 수집을 확대할 수 있음. 지역민이 일상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지역성을 덧붙여 지역자료로 승화시켜 줌으로서 지역민 스스로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소속감을 가져다 줄 수 있음
  - ‘시민기록활동가’, ‘시민기록가’ 등을 양성하여 과거가 될 현재의 지역 사회 모습을 스스로 기록하고 협업하여 지역자료로 축적함
    - 예) 서울기록원 서울을 기록하는 사람들, 공주학 시민기록활동가, 증평기록관 증평기록가 등
- 과거에 생산된 유형의 자료만큼 **구술자료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빠르게 소멸될 수 있는 기억은 불완전한 기록일 수 있으나, 소소한 개인의 기억이 모여 집단적 기억을 만들고, 한 사회의 과거에 대한 집합적 이해는 지역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침
- 지역민의 ‘기억을 기록으로’, ‘○○학 구술채록’, ‘○○인 구술채록’ 등의 이름으로 진행되며, 무형의 기억을 유형의 영상, 사진, 채록문 등의 형태를 갖춘 지역자료로 축적함
    - ※ 춘천학의 ‘춘천인 구술채록’, 증평기록관의 ‘증평, 첫 번째 기억’ 등
  -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 구술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청소년에게 이론적인 구술채록 방법을 교육하고, 구술채록과 글로 정리하는 직접체험을 통해 ‘우리 지역 바로 이해하기’와 기록학의 한 부분인 구술채록 교육, 지역학의 구술자료 확보라는 다면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최근 지역을 이루는 최소 공동체 단위인 마을을 중심으로 한 ‘**마을 아카이브 구축**’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마을아카이브 구축은 ‘**주민 중심적인 지역학 연구**’를 위한 긍정적인 기반으로 작용함
- 예) 춘천학 아카이브

- 아카이브 서비스 부문 :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이라는 시대 흐름 속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지역자료를 서비스 하는 ‘아카이브 홈페이지 모니터링단’으로 지역민(시민)이 참여하여 검색 및 이용과 관련된 서비스 개선 추구
- 아카이브 활용 부문 : 지역학 아카이브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기능, 즉 라키비움 구성방식의 실천이 가능함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민에게 지역자료를 오프라인에서 열람 및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를 반영구적인 유물로서 지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함
  - ‘아카이브 기록전’, ‘○○학 자료 기획전시회’ 등과 같은 것이 있음
  - ‘온라인기록콘텐츠 제작 공모전’의 시행과 같이 시민, 학생과 함께 수집된 자료를 가공하여 새로운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

## 2. 지역학 활용분야

### 1) 지역학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역민(시민)들이 지역의 가치를 이해하고 전승하기 위한 지역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의 지역정체성 함양과 시민의식 확산시키고자 하는 유형
  - ‘○○학 특강(강좌)’, ‘○○학 아카데미’, ‘교양 ○○학’, ‘○○학 평생학습’, ‘○○문화강좌’, ‘시민문화대학’, ‘시민오픈강좌’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진행됨
  - 각 수요자층에 맞춘 ‘생애주기별 지역학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맞는 교재개발(수요자별)도 함께 수반되고 있음
  - ‘전승문화재의 이해 모임’, ‘역사유적탐방’, ‘답사여행’ 등의 운영으로 역사문화자원의 현대적 계승과 활용을 도모하기도 함
  - 지역 내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학 기초학습’을 실시하고, 대학 내 ‘교양 ○○학’ 과목 개설을 통해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교양과 상식을 넓힐 뿐 아니라, 지역인재양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



- 지역학 강사로서 대학의 교수나 연구자뿐 아니라 공무원, 문화예술인, 기업인 등 지역의 신지식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신선하고 역동적인 지역학 교육프로그램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 지역학을 학습한 지역민으로부터 다시 지역학을 배우는 ‘순환적 지역학 시민자치프로그램화’ 가능
  - 지역문화에 관심이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학 강사 양성’, ‘골목길 이야기꾼 양성’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해 교육을 받은 시민이 강사가 되어 다시 시민에게 돌려줌으로서 순환적 교육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

## 2) 시민연구자 위촉과 지역학 정책 및 개발 참여

- 전문성을 가진 지역민(시민)과 함께 지역학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개발함으로써 시민의 지향점과 시민문화의식 투영이 가능한 유형
  - 지역전문성을 가진 지역민(시민)을 ‘시민연구원’, ‘시민전문가’ 등으로 위촉하여 지역학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 삼음
  - 시민연구자가 지역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하여 전문성을 높이면서 문화예술사업 발굴로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시민연구자의 참여로 지역민의 삶과 생각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할 수 있음
  - 시민연구자는 분야별 전문성의 벽을 허물어 지역학을 유연하게 대중화시킬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함

## 3) 시민소통의 광장으로 지역학 정립

- 지역민을 위한 정보교류의 중심에 ‘지역학’을 두어, 지역학 정립의 필요성과 진흥을 위한 지역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역학을 ‘소통의 광장’ 역할을 하게 하는 유형
  - 지역사회의 전문가와 행정가, 시민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광장’, ‘사랑방’과 같은 기능 수행
  - 현대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온라인 SNS 창구를 통한 지역학의 소식을 알리고, 온라인 속 열린 공간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3절 지역학 활용방안으로서 스토리텔링

#### 1. 스토리텔링의 일반적 이해

##### 1) 스토리텔링의 발생과 흐름

-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를 매우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일상의 언어로 간주됨
- 스토리텔링 용어는 1995년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린 ‘디지털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을 계기로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이 시기만 하더라도 스토리텔링은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을 의미하였음(고육·이인화, 2003)
  - 디지털 매체 기반의 콘텐츠 제작을 하기 위한 스토리 창작기술로서, 이야기를 디지털 영상, 텍스트, 음성, 사운드, 비디오, 애니메이션 등 기술과 결합한 형태를 가리킴
- 스토리텔링이 국내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꾸준하게 연구가 되었고, 다양한 학문분야에서의 연구를 통해 이는 점차 확장되었음
  - 초창기 디지털 공간영역에서 시작된 스토리텔링 연구는 문학과 문화학, 교육학, 사회학, 행정학, 관광학, 정책학 등의 분과학문과 문화콘텐츠학·융합콘텐츠학·문화예술경영학 등 다양한 융합학문의 영역으로 확대됨
  - 이는 스토리텔링이 하나의 학문에 매여 있기보다는 융합과 통섭이라는 속성을 통해 융합학문의 영역으로 확장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는 무엇보다 대부분 학문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이처럼 학문적 영역을 포함하여 스토리텔링은 뿐만 아니라 광고, 영업, 홍보, 출판, 관광 및 문화산업 등 실생활과 업무 영역에서 스토리텔링은 다룰 수 있게 되면서 일상의 하나로서 간주 되었음

## 2)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유형

- 스토리텔링이란 ‘이야기하기’라는 의미를 담보한 채, 사건에 대한 진술이 지배적인 담화양식으로(박기수 외, 2012), 스토리·담화·이야기가 담화로 변하는 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고옥 외, 2003)
- 스토리텔링은 ‘말하는 방식’ 함의하는 것으로, 나아가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수요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새로운 말하기 방식을 뜻함
- 스토리텔링은 통섭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으며, 여러 학문을 통합할 수 있는 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연구됨으로써 정체성이 나타남(최혜실, 2009)
  - 문학과 문화콘텐츠 분야에서의 스토리텔링은 인문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고 서사학의 학문적 관점을 통해 이론적 토대가 완성됨
  - 영상분야에서는 텔레비전, 컴퓨터, 영화 등 영상 관련 기술의 발전을 담보로 스토리텔링을 통해 사람들이 영상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시켜 줌
  - 교육분야에서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학습자의 재미를 높이고, 동시에 효과까지 제고시켜 주는 기능을 함
  - 디지털·게임 분야에서는 스토리텔링의 본질적 의미가 디지털 기술에 있듯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디지털 기술을 매체 환경 또는 표현수단으로 수용하여 이루어지는 스토리텔링을 의미함
  - 관광·공간 분야에서는 공간을 텍스트로 하여 이야기 부여 행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공간에 얽힌 이야기에 공감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음
- 지역학에서의 스토리텔링은 지역이라는 공간텍스트를 매개로 하는 관광·공간 분야에서의 스토리텔링과 유사한 맥락에 의해 출현하며, 이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음

## 2. 지역학 활용방안으로서 스토리텔링

### 1) 스토리텔링의 매개로서 지역

- 지역이라는 공간은 단지 물리적인 위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고 가꾸고 살아가고 부리내릴 수 있는 삶의 총체적 요소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음(김영순, 2011)
- 지역은 사회적 행위에 의해 지속적으로 형성·변화하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김양식, 2017)로 파악됨으로써 지역은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 아닌 역사적·사회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음
- 이처럼 지역의 개념은 당면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바뀔 수 있으며, 스토리텔링의 결합을 통해 이의 매개로서 기능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님
- 공간에 이야기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죽어있던 공간이 생생하게 살아나기도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칠 수 있음
  - 물론 지역이라는 공간에서의 스토리텔링은 시민들의 심리적 인정을 통한 공감을 전제해야 하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을 때 이를 통해 구현된 스토리텔링은 흉물로 남을 수 있음
- 지역을 매개로 하는 공간스토리텔링은 두 가지로 정의 할 수 있음(김영순, 2011)
  - 현대적이며 발신자적인 관점으로, 공간 생산자가 공간을 매개로 하여 공간 소비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행위
  - 원초적이며 수신자적인 관점으로 인간의 삶의 터전인 공간 그 자체에 인간이 이야기를 부여하는 행위를 말함

## 2) 지역학의 시민 참여제고를 위한 스토리텔링 과정

- 지역학에서도 스토리텔링을 통한 이야기 부여하기 과정이 필요함
  -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지역학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음
  - 이처럼 지역학에서의 시민참여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정체성을 구현하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매우 중요함
- 지역학에서의 스토리텔링 과정은 공간스토리텔링의 과정과 유사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김영순·정미강(2008)의 연구를 활용하고자 함

### ■ (1-1 단계) 공간 텍스트의 맥락분석

- 공간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맥락분석이 중요하며, 공간의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적·문화적·역사적 연속선상에서 도시를 바라보려는 거시적 태도를 취할 수 있음
  - 공간의 맥락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결(quality)과 질(texture)을 파악해야 하는데, 질이란 주어진 사건의 종합적 의미·특징·전체성을 가리키며, 결이란 질을 구성하는 관계나 세부적인 조직을 말함
  - 공간의 결과 질은 지형의 관찰, 현상학적 관찰, 인터뷰, 문헌 조사 등을 통한 조형적·현상학적·기호학적 읽기의 통합을 통해 찾을 수 있음

### ■ (1-2 단계) 장소성 파악

- 장소성 파악을 통해 현상들이 특정한 이미지로 모이고, 이를 통해 정체성이 구현되고 스토리텔링을 더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이는 매우 중요함
  - Tuan(1977)은 장소성이 형성되는 요인을 시간과 가시성으로 파악하였는데, 인간이 장기적으로 가시적 현상들을 체험함으로써 형성된다는 의미

- Schultz(1980)는 프라하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경관의 신비로움, 외래의 힘에 저항하면서 역사적으로 축적된 맥락을 신비함(mystery)으로 장소적 본질을 파악하였음

## ■ (2단계) 테마 설정 및 이야기 부여 단계

- 테마와 이야기는 지역민, 방문객에게 장소성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하며, 파악된 장소성을 통해 테마를 설정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함
  - 이야기의 사실 여부, 플롯의 완벽성, 분량의 많고 적음은 크게 상관이 없으나, 공간의 맥락·장소성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어야 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함
- 공간에 부여되는 이야기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음
  - ‘원래 공간에 존재하는 이야기’로서 역사문화에 기반하며 이는 진실성을 통해 진정성을 가진다는 큰 장점이 있고, 과거의 이야기 발굴을 통해 시민들의 애착심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미디어를 통해 만들어진 가상의 이야기’로서, 소설·드라마·영화 등 대중 매체에 의해 소개된 공간에 부여한 이야기를 의미하며, 드라마 겨울연가의 배경이었던 춘천의 남이섬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유형을 통한 공간스토리텔링은 대중 매체의 종료 이후 금방 식어버린다는 단점이 있음
  -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의 도입으로서 디즈니랜드 테마파크가 대표적이며, 도쿄·파리·LA에 있는 디즈니랜드의 맥락을 만들어 이야기를 생산하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음
- 이같이 공간 스토리텔링 과정을 통해 지역학의 시민 인식과 참여제고를 이루는 과정과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음

# 시민참여 지역학과 스토리텔링 사례

1절 시민참여 지역학 교육 사례

3장





# 3장 시민참여 지역학과 스토리텔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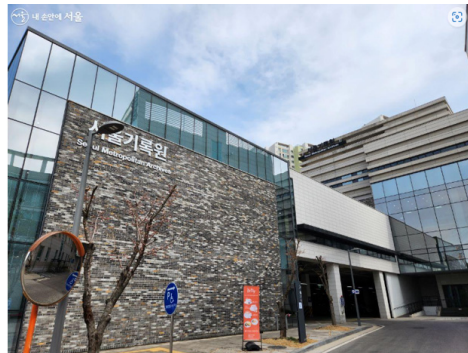
## 1절 시민참여 지역학 교육 사례

### 1. 서울\_서울기록원

- 서울기록원은 시민과 함께 기록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건립된 기록관리 전문기관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17개 광역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록 자치 실현 및 지방기록물의 체계적 보존을 위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의무적 설치에 따라 지방 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2019년에 서울기록원이 개원
- 기록활동가 양성 과정 교육을 통해 서울기록원과 아카이브, 기록의 필요성과 기록전문가의 역할과 사명을 시민들에게 알림
- 위대한 업적을 남겨 잘 알려진 인물뿐만 아니라 다소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집단과 평범한 시민에 대한 가치 있는 기록도 필요함
- 기록전문가뿐만 아니라 ‘기록활동가 양성과정’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관점에서 보는 시민 기록활동가도 필요함



서울기록원에서 3월 21일부터 5일간 '기록활동가 양성 과정' 교육을 진행했다. ©윤혜숙



서울기록원은 시민과 함께 기록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건립된 기록관리 전문 기관이다. ©윤혜숙

〈그림 3-1〉 서울기록원 기록활동가 양성과정 교육

※ 출처 : 서울기록원 공식 누리집

## 2. 공주\_공주학 시민기록활동가

- 공주학 아카이브는 지역 정체성 확립과 공주학 연구의 토대 마련을 위하여 아카이브를 구축
  - 공주학 아카이브는 공주 시민이 직접 기록에 참여하고, 자료를
  - 기증하여 만들어지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카이빙
- 역사적 기록물뿐 아니라 지리, 환경, 언어, 교육, 행정, 산업 관광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자료 구축을 목표
- 도서 간행물, 문서, 사진, 시청각류를 비롯하여 시민들의 구술채록 수집하여 정보 제공
- 기록에 근거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수집된 기록이 지역문화 정책 발전을 위해 널리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 제시
- 공주학 아카이브의 시민기록활동가를 모집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기록 활동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인식을 확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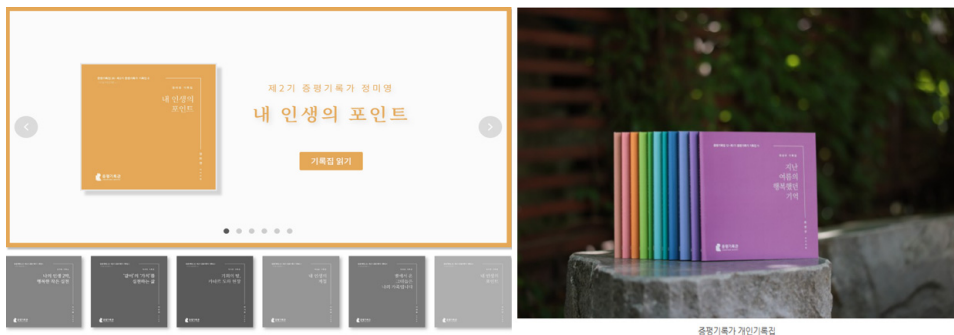


〈그림 3-2〉 공주학 시민기록활동가-공일기

※출처 : 공주학 공식 누리집

### 3. 증평\_증평기록관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기록관이 행정중심의 기록물을 보관·관리하는 것과 달리 증평기록관은 행정기록은 물론 기록자치 실현을 위한 민간 기록 구축시설이자 주민들의 공유공간
  - 증평기록관은 박제되어있던 행정기록물들이 살아있는 정보로 재조명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 보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과거 기록들을 현재로 끌고 나왔고 되살림
- 농식품부 국비공모 사업인 마을아카이빙 프로젝트를 통해 농촌기록 콘텐츠 발굴, 마을기록집 발간, 마을기록 허브센터 구축, 마을 기록영화 제작, 기억발전소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 추진
- 증평기록가를 모집하여 함께 기억과 기록을 모아 정리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같이 공부함
- 증평기록가들은 자신이 속한 마을과 단체에서 아카이빙 활동을 하면서 증평기록관과 함께 주도적으로 증평의 기록과 역사를 만들
- 양성프로그램을 교육을 모두 수료하면 증평기록가가 되어 자신이 속한 마을과 단체의 아카이빙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마을과 단체의 기록을 모아 놓은 디지털 아카이브도 만들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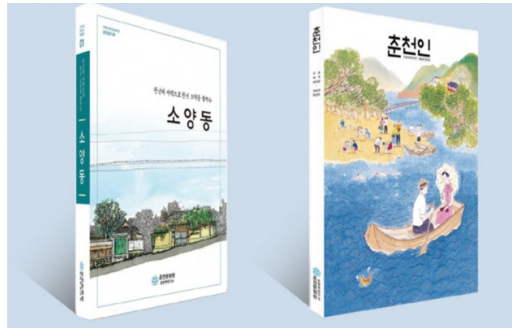


〈그림 3-3〉 증평기록관의 증평기록가

※ 출처 : 공주학 공식 누리집

#### 4. 춘천\_춘천학 춘천인 구술채록

- 춘천학 연구소는 춘천 지역이 지닌 정체성을 찾아 밝히고 지역 특성화를 끌어내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구술채록 사업을 진행
  - 구술채록 사업은 시민기록단을 통해 시민의 삶을 기록하여 춘천 역사를 새롭게 바라보는 사업
- 구술채록 사업의 결과물은 매거진《춘천인》과 ‘증언록’ 두 가지 출판물로 발간함
- 시민기록단의 구술채록을 통해 확보로 제작된 시민 개개인의 구술기록 집은 연구 및 아카이빙을 위해 사용
- 《춘천인》은 젊은 세대가 주축인 시민기록단이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구술을 기록하는 등 세대 간의 소통 화합에도 일조함



〈그림 3-4〉 춘천학 -시민기록단 구술채록

※ 출처 : 춘천학 공식 누리집

## 5. 서울\_서울연구원의 작은연구 좋은 서울 지원사업

- 시민이 직접 서울시정과 일상생활에 대해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고, 생활현장에서 연구를 수행해 정책을 건의하는 서울연구원의 대표적인 시민참여 연구사업
- 서울연구원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267개의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시민의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
- 서울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개인 또는 단체)이라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작은연구 지원사업의 연구과제는 ‘기획주제’와 ‘자유주제’로 나뉘 공모
  - 기획주제: 동행과 매력 글로벌 매력 도시와 관련한 연구, 사회·복지·경제·도시계획·환경·정보
  - 자유주제: 사회·복지·경제·도시계획·환경·정보
- 선정된 지원자는 6개월간 서울연구원의 해당 분야 연구진과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며 연구를 수행
- 각 선정자는 착수·중간발표회를 통해 연구 수행과정을 공유·점검한 뒤 최종발표회에서 연구 결과와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최종결과물로 연구 보고서 제출

The image is a composite of two parts. On the left is a YouTube video player thumbnail for a video titled '작은연구 지원사업' (Small Research Support Project). The thumbnail features an illustration of people working together with gears and lightbulbs, symbolizing innovation and research. On the right is a screenshot of the project's website. The website header reads '작은연구 지원사업' and includes a brief description: '작은연구 지원사업은 시민 스스로 일상 현장의 문제를 연구하고 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민 연구사업으로 18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Below this, there are two report listings:
 

- 2022년 '작은연구' 지원사업 연구과제 보고서
  - 등록일: 2023.01.13 | 조회수: 3,415
- 2021년 '작은연구' 지원사업 연구과제 보고서
  - 등록일: 2022.03.03 | 조회수: 3,263

〈그림 3-5〉 서울연구원-작은연구 지원사업

※ 출처: 서울연구원 공식 누리집



## 시민참여 제고를 위한 세종학 기본구상

1절 세종학 시민 참여 제고를 위한 기본구상

2절 세종학 시민 참여 제고를 위한 전략과 과제

3절 세종학 실무를 위한 로드맵 제안

## 4장





# 4장 시민참여 제고를 위한 세종학 기본구상

## 1절 세종학 시민 참여 제고를 위한 기본구상



〈그림 4-1〉 비전 구상도

## 1. 비전 : 세종시 일상에서 누리는 ‘시민 세종학’

- 세종학 시민 참여를 위한 기본구상 중 비전으로 [세종시 일상에서 누리는 ‘시민 세종학’]을 제안하고자 함
- 세종학인 시민 인식확산을 도모하고, 이를 넘어 완전한 시민 참여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 일상에서 지역학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시민 지역학의 형태로 가야함

## 2. 비전 수립의 전제 : 지역학 거버넌스 구현

- 시민 참여 확산을 위한 비전 수립을 위해서 지역학 관련 기관의 연계 협력을 통한 ‘세종학 거버넌스’를 구현할 필요가 있음
- 세종시에 있는 지역학 연관기관 중 전문 영역을 특화하여 세종학을 진흥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1) 지역학 플랫폼으로서 ‘지역학 연구센터’

- 대전세종연구원 내 지역학연구센터는 대전학과 세종학을 각각 전담하는 연구 조직으로서 2021년도에 출범하였음
- 세종학 관련 활동으로는 세종학 총서 발간·세종학 세미나·세종학 포럼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종시 초등학교 사회과 지역화교재 검토 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지역학연구센터는 2024년 세종학센터와 대전학센터로 분리를 예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종학 전문 연구센터로서 역할이 기대되고 있음
- 세종학센터는 센터 자체에서의 연구 수행뿐만 아니라 각 연구기관의 특성을 극대화하고,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지역학연구센터는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조사·연구의 기능과 함께 플랫폼으로서 성격을 강화하여 지역학 연관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2) 전문 영역 특성을 강화한 ‘지역학 관련 기관’

### ■ 전통문화 전문기관으로서 ‘세종문화원’

- 세종문화원은 지역의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향토사의 연구를 통해 역사적 정체성을 구현하고 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전문기관임
- 따라서 이 기관은 세종학 관련 기관 중에서 전통문화를 창달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역사적인 지역학적 관점의 연구를 수행하는 역할이 기대됨

### ■ 평생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은 세종시 미래인재육성과 평생학습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 진흥원으로서 세종시민 역량 강화를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이 기관은 세종학 관련기관 중에서 평생학습적인 관점에서 세종학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을 일깨우고 이해시키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 지역학 교육기관으로서 ‘학교·교육청’

- 세종시 내 초등학교 3~4학년 과정에서 사회과 교재 내 ‘행복도시 세종’이라는 지역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교육청에서 교재를 집필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실제로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교육을 진행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따라서 학교와 교육청은 지역학 관련 기관 중에서 교과 교육을 통해 세종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길잡이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 생활 밀착형 기관으로서 ‘복합커뮤니티 센터’

- 세종시민의 생활문화 향유를 위한 정거장이자 문화커뮤니티 거점 역할을 하는 세종시의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난 대표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음
  - 1개 읍, 9개면, 14개 행정동에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총 24개소가 있음
- 따라서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역학 관련 거버넌스 중에서 생활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시민과 소통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 디지털 콘텐츠 기관으로서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세종테크노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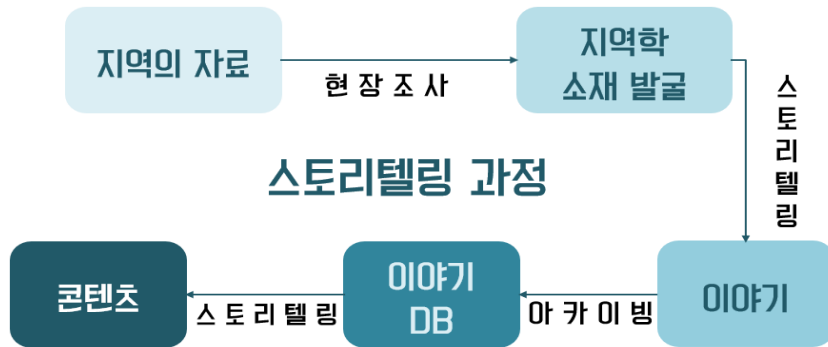
-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는 미디어의 쓰임새를 시민들이 직접 구현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진행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는 미디어교육, 장비시설대여, 기획행사 및 제작지원 등의 역할을 진행하고 있음
- 세종테크노파크는 지역의 산업 고도화·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관이며, 2021년에는 지역콘텐츠산업 거점기관으로서 지정이 되면서 지역의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지원 업무를 겸하고 있음
- 따라서 이 기관은 지역학 관련 거버넌스 중에서 디지털 기술 및 미디어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지역학 활용을 통한 콘텐츠 등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이 가시화되고, 세종시 역시 스마트시티·실감형 콘텐츠 등 기술 기반 산업의 발전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관의 역할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

### 3. 전략목표

#### 1) 전략목표 개요 : 지역학으로서 세종학, 시민 공감 스토리텔링

- 세종학의 시민 인식 확대와 참여 제고를 위한 스토리텔링 목표를 ‘지역학으로서 세종학, 시민 공감 스토리텔링’이라고 제안하고자 함
- 지역학으로서 세종학
  - 세종학의 조례가 2018년 제정되고, 세종학진흥위원회가 3기를 맞이하며, 세종학포럼 3회차, 세종학세미나 2회차, 세종학총서 1권이 출판된 만큼 적지 않은 활동을 한 상황에서 세종학이 지역학으로서의 역할을 살피볼 필요가 있음
- 시민 공감 스토리텔링
  - 이 같은 상황에서 시민 인식과 참여의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세종학의 실질적 가치를 구명하는 작업이 필요함
  - 이의 방안으로서 지역을 매개로 하는 스토리텔링을 제안하고자 하며, 스토리텔링 성패의 우선적인 요인으로서 시민 공감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음
  - 시민 공감이 뒷받침 되지 않는 스토리텔링은 ‘속 빈 강정’과 같은 것으로 시민 향유의 매개로서 기능하지 못해 도태될 뿐임

## 2) 전략목표 추진과정 : 세종학 스토리텔링 추진과정



〈그림 4-2〉 스토리텔링 추진과정

### (1) 지역의 자원발굴 : 세종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자원 발굴

- 세종시 내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역사·고전문학·인물·사건 등 문화자원 소재의 발굴을 위한 현장조사 진행
  - 인류학적 현장조사(field-work)를 통해 지역에 숨어있는 다양한 문화적 소재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음
- 지역학의 문화적 소재로서 활용 가능성 염두를 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지역학의 문화적 소재로 활용 가능한 자원을 조사 및 분석하여 향후 세종학센터의 핵심 이야기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 관내 대학 및 공공기관 등을 통해 지역문화자원 발굴 프로젝트 공모전 등을 진행할 수도 있음

□ (사례) 콘텐츠 창작자 IP 발굴 지원사업

-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아이템 사업화 및 콘텐츠 IP 권리 확보 등을 통한 신규 창업 발굴 및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 내 창작자 및 예비창업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함
- 사업명 : 2023 콘텐츠 창작자 IP 발굴 지원사업
- 추진목적 : 아이템 사업화 및 IP 권리화 지원을 통한 신규창업 발굴
- 모집대상 : 창작자 및 예비창업자, 대학생 등 신규창업 희망자
- 최초 공고일(2023.04.14.) 기준, 기창업자 제외
- 모집규모 : 총 15팀 내외(최종 사업화 지원 10팀 선정)
- 지원분야
  - 캐릭터·웹툰·게임·애니메이션·음악·실감콘텐츠(VR·AR, 홀로그램 등) 등 콘텐츠 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서비스 등과 관련된 콘텐츠 분야
  - 콘텐츠 장르 간, 순수예술과 첨단기술 간, 콘텐츠와 기술 간 융합에 기반한 새로운 창작과 비즈니스 사업화 분야
-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4-1] 콘텐츠 창작자 IP 발굴 지원사업 충남 사례

구분	관련법 근거		세부 분야(예시)	
지원대상	도내 창작자 및 예비창업자		1단계 선정팀(15팀)	
모집 및 선정	모집	05.09(화)~05.22.(월)	선정	6월 말
	선정	05.26.(금) 예정		
지원 규모	15팀 내외 / 간접지원		10팀 / 팀당 10,000천원 내외	
지원기간	05.26.(금) ~ 6월 말		6월 말 ~ 11.10.(금)	
지원내용	- 참가자 역량진단 - 사업화 기초 멘토링 및 BM개선 - 아이템 및 BM 타당성 검증 등		-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비용지원 - IR 피칭, 투자전략수립 등 지원 - 입주공간 및 네트워크 연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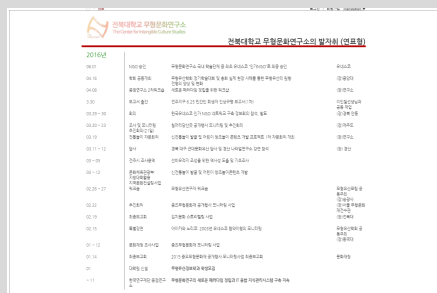
## (2) 지역학 소재 목록화

- 목록화에 관한 기준 및 지침 마련이 필요함
  - 형태를 기준으로 하는 유·무형의 자원, 장르를 기준으로 하는 예능·기능 등의 분류를 진행할 수 있음
- 지역학 소재의 목록화 작업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인식을 환기하는 점을 들 수 있음
- 각 지역민·공동체가 지역학 소재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목록화 과정을 통해 정책·행정적인 측면에서 관련 정보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지역학계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등 학계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장기적인 자료의 축적을 통해 관련 연구자들의 학술적 연구자료 및 교육자료로서도 가치와 의미가 있음



□ (사례) 무형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ICHPEDIA'

- ICHPEDIA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정보를 웹 (web) 기반의 백과사전으로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로, 전북대학교 무형문화연구소가 개발 하였음
  - ICHPEDIA는 ICH(Intangible Cultural Heritage)와 PEDIA(encyclopedia)를 합쳐 만든 용어로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의 축적을 통해 전 국민과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음
  - ICHPEDIA는 30여 명의 연구자와 학생들이 참여해서 함께 구성하고 있지만, 누구라도 여기에 관한 정보 업로드가 가능하며, 편집도 가능한 것이 특징
- 무형유산은 세대 간에 전해 내려온 전승성과 현재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현존성을 중시하고, 사라져가는 무형유산의 보호와 전승 방안을 제시하고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데이터를 제공
  - 열린 지식공동체를 추구하기 위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며, 웹을 기반으로 한 무형유산 Initiative를 선포
  - 전승주체와 조사·수집자의 지적 재산을 모두 보호하고, ICHPEDIA의 자료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그림 4-3〉 이치피디아 홈페이지 화면

□ (사례) 세종시 구비문학 목록 (지역별 분류)

구분	목록
전동면	<p>석곡리 돌꽃이 유래 1,2                      능안, 용무담(龍無潭)과 용혈(龍穴), 충신 김승로와 지명전설                      돌을 굴러내려 망한 조씨네, 이여송이 자른 혈                      청람리 지명유래, 권봉장군과 말무덤, 흥년 구제                      노장2리 배 형국의 땅, 노장5리 뱀이 개구리를 물은 형국                      노장5리 화재로 잃어버린 느티나무 고목                      마곡1리 느티나무제와 느티나무를 다시 심은 사연                      마곡2리 파숫골 전설, 마곡2리 삼천명의 피난골 ‘피난바위’                      마곡2리 치마바위에 얽힌 전설                      보덕2리 이장 홍종화 새마을운동, 국사봉이 보호한 석곡리                      연기군에서 제일 먼저 특수작물을 재를 한 송곡1리                      송곡1리 스님에 의해 다시 시작된 서낭제                      송곡1리 오래오래 살았다고 됐던 빈상여놀이 ‘젯덜이’                      누에를 키워 전동면에서 제일 부자 동네였던 송곡리                      송곡2리 왕과 바꾼 뗏자리                      송성2리 마을에서 가장 큰 행사인 등구나무제                      송성3리 호랑이가 보호해 준 효부 옥천전씨                      송정2리 안터 전설                      고려 조선시대에 웅기 굽던 곳이 있던 송정2리                      심중2리의 수호신 느티나무 수왕제                      임진왜란 의병장 변응정, 청람리 개미고개와 한국전쟁</p>
소정면	<p>연기군 제일의 대곡4리 마을숲과 장승제,                      고등리 농요, 덕바위마을의 수호신 ‘수살’                      복지형 형국의 명당 소정3리 안말                      당리 수살제를 지내는 느티나무                      대곡리 새마을운동을 전국 최우수마을로 만든 손석주                      교통의 요지에 김제역이 있던 대곡3리                      일제강점기 수탈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대곡4리 마을숲</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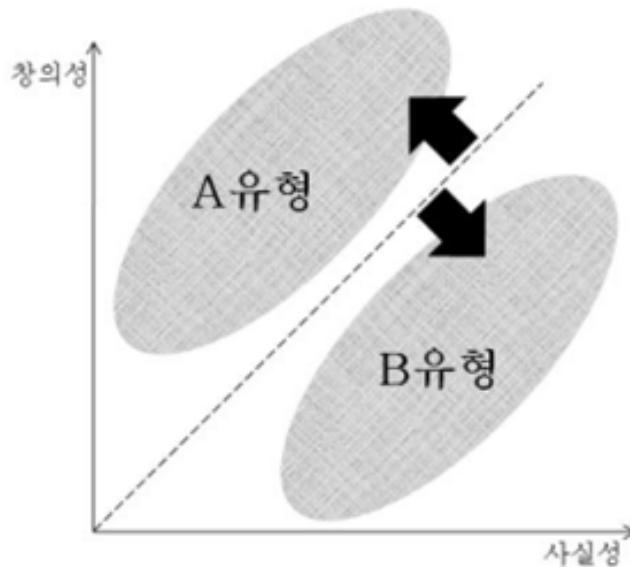
□ (사례) 세종시 구비문학 목록 (지역별 분류)

구분	목록
전의면	<p>석곡의 선돌, 벼락바위, 쌀나오는 바가지, 요술병, 조마구 수랑골의 느티나무, 이장하고 망한 변씨네       쥐가 꼬리를 물고, 물고 ... 며느리의 효성을 알아준 명판결, 호랑이와 동거한 김사준 북문고개의 피, 중샘, 개바위, 피숫골 이야기       세종대왕의 눈을 치료한 '전의초수' 세종시 3.1운동의 시초 전의면, 전의 이씨의 시조 이도 비암사와 불비상, 국내 최고의 각궁 제조 장인 주장응</p>
연서면	<p>      고려 대몽항쟁 전투인 연기대첩       세종 유일의 사액서원 봉암서원지       연서면 출신의 독립운동가 홍일섭       세종시 대표 민속놀이, 용암강다리기       5대 7명의 효행 가문 연서 효교비 일제강점기 경찰지서가 남아있는 성제리       결성장씨의 문중서당 봉서재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한 문화재 반출       세종시민들의 쉼터, 고북저수지       현몽으로 찾은 불비상</p>
장군면	<p>      거북바위의 전설과 지명, 장군면 민요       1970년대 수도 이전 논의와 장군면       목거리 전설, 팽이뿔과 과부 이야기       병풍정이 전설, 장군면의 깃고사, 한다리 전설       송학리 거북이 명당 유래</p>

### (3) 스토리텔링 과정을 통한 이야기 변환

- 지역학 소재의 시민 인식 확산을 도모하고, 시민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을 통한 이야기로의 변환 과정이 필요
- 이 단계에서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의 개념으로서 태지호(2014)의 정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
  - 태지호(2014)는 문화콘텐츠의 ‘문화’를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가 언급한 대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이르는 ‘특정한 삶의 방식’을 논의함으로써, 콘텐츠와 문화콘텐츠의 의미는 일맥상통함을 밝혔으며, 문화콘텐츠를 “문화적 소재가 구체적으로 가공되어 매체에 체화한 무형의 결과물”로 정의함<sup>1)</sup>
  - 이의 논의는 콘텐츠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소재가 가공되어야 하고, 매체에 체화해야 한다는 과정이 수반되는데, 매체와 결합하기 전 과정까지의 단계를 ‘이야기’인 것임
- 김영순·윤희진(2010)은 향토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하였음
  - 첫 번째 A 유형은 창의성이 사실성보다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료로 게임·영화 등 영상콘텐츠를 예로 들 수 있음
  - A유형의 향토문화자원 스토리텔링은 창의성의 비중이 커 시민들의 정서와 감성을 전달하는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으로 가공되어야 함
  - 두 번째 B 유형은 사실성이 창의성보다 우위에 있는 자료로 다큐멘터리 제작이나 박물관·전시관의 스토리텔링이 대표적인 예로서, 이 자료는 객관적인 지표로 설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1) 태지호(2014), 『공간형 콘텐츠』, 커뮤니케이션북스이해총서



〈그림 4-4〉 스토리텔링 유형

#### (4)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통한 이야기의 아카이브화

- 수집된 이야기자원이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창의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디지털 스토리텔링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수집된 이야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위한 아카이브의 필요성이 증가하며, 아카이브를 통해 기록을 관리·보관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함께 가짐
  - 아카이브(archive)는 보존가치가 있는 문서(documents), 도서형태가 아닌 기록물(records) 자체를 가리키며, 동시에 이러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함
  - 아카이브를 '기록'으로 볼 것인가, 저장하는 '장소'로 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카이브는 1차적으로 사료적 가치를 가진 것들을 수집·정리·보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아카이브는 글로 된 문서 기록물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진·이미지·동영상·소리 등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모두 포함하는 매우 다양한 영역임

- 아카이브를 두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외래어 발음(archives)을 한국어로 변환하여 부르고 있음
-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다음과 같은 5단계 재현과정을 거치게 됨
  - 실재→데이터→데이터베이스→알고리즘→인터페이스
- 실재가 디지털 매체가 되어 데이터가 되고 데이터가 정리되어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과정과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가 추출된 후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결합하여 인터페이스가 되는 과정이라는 디지털 미디어의 생산과정과 동일

#### **(5) 콘텐츠 구현을 통한 시민소통과 참여제고**

- 지역의 자원, 즉 지역학의 문화적 소재가 시민과 소통하고 향유의 매체로서 작동하려면 ‘콘텐츠’로의 구현이 필요함
- 시민들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학적인 다양한 이야기들을 콘텐츠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향유하고 함께 누릴 수 있음

□ (사례1) 세종시 화백, 장육진의 이야기를 활용한 연극 <길 위의 자화상>

○ 세종시 지역 극단 '세종'은 지역에서 태어난 근대 화백 장육진과 그의 작품 <길 위의 자화상>, <소녀>, <진진묘> 등의 작품을 활용하여 연극을 진행함

- 일시 : 2022년 9월 3일 오후 1시, 4시

- 장소 : 세종시민회관

○ 이 같은 작품을 통해 시민들은 세종시 출신 화백 '장육진'과 그의 작품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으며, 특히 세종시에서는 장육진의 생가를 활용하여 '장육진생가기념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 정책적인 활동에 있어 시민 인식의 확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그림 4-5> 길 위의 자화상 홍보 포스터

□ (사례 2) 가네코 후미코의 일대기를 활용한 연극 <스물 셋, 박문자>

- 세종시 지역 극단 '세종'은 일본인 여성으로서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된 '가네코후미코'의 일대기를 활용한 연극을 진행하였음
- 가네코후미코는 1912년부터 1919년까지 부강면(당시 부용면 부강리)에 거주하는 고모에 의탁하였으며, 부강공립심상학교 4학년을 입학하여 초등교육 과정을 마쳤음
- 특히 그녀는 1919년 3.1만세운동에 큰 감동을 받고, 그해 일본으로 떠났으며, 일본에서는 독립운동가 박열과 함께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였음
- 이 공연을 통해 가네코후미코의 삶을 들여다 봄으로써 평범한 일본인이 아닌, 대한민국 독립운동가로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지역의 독립운동에 관한 이해를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가 되었음



〈그림 4-6〉 연극 <스물 셋 박문자>의 공연 모습



## 2절 세종학 시민 참여 제고를 위한 전략과 과제

### 1. 추진전략

#### 1) 가족 대상 지역학 콘텐츠

- 세종시는 전체 광역자치체 중에서 출산률이 1.2로 가장 높으며, 유소년 인구비율(0~14세)은 전체 인구의 25.7% 차지함
  - 유소년 인구비율이 많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함
  - 유소년층은 단독으로 콘텐츠를 즐기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콘텐츠를 향유 할 수밖에 없기에 유소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 대상의 콘텐츠 구현이 필요함

#### 2) 이야기 자원 활용 전략

- 지역학 연구와 활동이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스토리텔링 과정이 필요함
- 더욱이 이야기를 활용하기 전 이야기의 원천 자원 발굴이 필요함
  - 행정복합도시의 신도시권은 새로운 도시형태가 갖춰짐에 따라 과거부터 전승되어 온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읍면지역의 원도심권은 아직도 곳곳에 자원이 묻혀있음
  -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인류학적 현장조사(field-work)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원의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스토리텔링을 통해 구현된 이야기를 활용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 3) 지역학으로서 세종학 연계 교육 전략

-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세종학 교육이 필요함
- 세종시는 이주민의 도시이자, 국가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신생도시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음
-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강화하고, 자부심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교육 활동이 필요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 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 4) 지역학 인력양성

- 스토리텔링의 주체로서 스토리텔러를 의미하며,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로컬문화인·코디네이터 등의 활동가와 지역문화 예술가, 문화예술교육의 매개자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스토리텔링의 성패는 시민 공감과 함께 창의적이며 현대적인 기획력이 담보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창의성에 기반한 인력 양성이 필요한 상황임
- 이 같은 지속적인 스토리텔러의 양성을 통해 지역학 활용방안으로서 스토리텔링의 기반을 쌓을 수 있으며,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을 진행함으로써 지역학의 시민 참여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 2. 전략별 세부과제

[표 4-2] 콘텐츠 창작 IP 발굴 지원사업 충남 사례

추진 전략	전략별 세부사업
가족대상 지역학 콘텐츠	(1-1) 세종학 주간 운영 (1-2) 세종학 가족 대상 콘텐츠 개발
이야기 자원 활용 전략	(2-1) 세종학 소재 IP 발굴 공모전 (2-2) 세종학 이야기 자원 아카이브 (2-3) 디지털 세종학 기반 마련
세종학 교육·연구	(3-1) 초등학교 세종학 교육 강화 (3-2) 세종학 작은 연구
지역학 시민 인력양성	(4-1) 시민 세종학자 양성

### 1) 가족 대상 지역학 콘텐츠

#### (1-1) 세종학 주간 운영

##### □ 수행기관

-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지역학연구센터 등

##### □ 필요성 및 목적

- 1년 중 일주일을 선정하여 시민들에게 세종학을 이해시키고, 소통함으로써 시민의 인식을 강화하고자 함
- 세종시민과 세종학의 소통 면적을 넓힘으로써, 세종학에 대한 정확한 인식 확산을 도모하고, 지역학 연구·활동에 대한 많은 참여를 목적으로 함

## □ 사업내용

- 세종시의 정체성이 묻어나는 한글날(10월 9일) 또는 세종대왕 나신 날(5월 15일)을 기준으로, 일주일을 선정하여 세종학 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함
  - 한글날의 경우 세종축제·한글날 기념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가 도시에서 펼쳐지고 있어 시민의 참여를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으나, ‘세종학’에 대한 본래의 취지와 의도가 묻힐 수 있음
  - 스승의 날로 알려진 세종대왕 나신 날의 경우 5월 15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에 관한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효과와 함께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으나, 시민 참여의 어려움 또한 예상됨
- 세부 내용으로는 세종학을 알리기 위한 부스를 운영하고, 전시와 체험, 퀴즈 대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를 이해시키는 콘텐츠를 구상할 수 있음
  - 지역학연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종학 세미나 또는 세종학 포럼과 연계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너지의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 (1-2) 세종학 가족 대상 콘텐츠 개발

### □ 수행기관

-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지역학연구센터,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등

### □ 필요성 및 목적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통해 시민들은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더욱 흥미있게 이해할 수 있음
- 이 같은 이해의 과정을 통해 지역을 다시 일깨우고,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역학적 관점의 목적이 있음

## □ 사업내용

- 세종시가 품고 있는 인물·역사·문화·생태 등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스토리텔링 과정을 통해 이야기로 구현하고자 함
-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구현된 이야기는 연극·음악·시각·디지털 등 매체와 결합함으로써 콘텐츠로 개발하고자 함



※ 출처: 수도일보 공식블로그  
〈그림 4-7〉 실경뮤지컬 퇴계연가 사례



※ 출처: mihwa블로그  
〈그림 4-8〉 구포 1919 공연 사례

## □ (사례) 퓨전국악그룹 밴드 ‘풍류’의 활동

- 퓨전국악그룹 ‘풍류’는 2009년 2월에 창단한 밴드로서 전통의 원형을 활용하여 클래식·재즈·성악·무용·연극·인문학·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장르와 융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음
- 특히 세종시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현대적이며 창의적 기법의 적용을 통해 다양한 음악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음
  - 세종대왕과 안락감의 이야기를 활용한 ‘안락감아’
  - 서거정 문인의 한시 전의찬을 활용한 ‘전의찬가’
  - 금강 상고대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서리꽃’
  - 조치원 낮도깨비 구전설화를 활용한 ‘낮도깨비’ 등의 작품이 있음



※출처: 퓨전국악그룹 풍류 공식홈페이지

〈그림 4-9〉 퓨전국악그룹 ‘풍류’의 공연 모습

## (2-1) 세종학 소재 IP 발굴 공모전

### □ 수행기관

-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등

### □ 필요성 및 목적

- 콘텐츠의 핵심요소로 IP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의 확보를 통해 향후 콘텐츠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음
-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지역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문화자원을 발굴하고자 하며, IP로 활용 가능한 소재를 조사 및 분석하여 향후 세종학의 핵심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 □ 사업내용

- 대학생,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야기 소재(IP) 발굴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하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문화자원 원형 분야 또는 스토리텔링 분야 등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음



※출처: 한국문화원연합회  
〈그림 4-10〉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출처: 광주콘텐츠코리아랩  
〈그림 4-11〉 스토리텔링 공모전 포스터

## (2-2) 세종학 이야기 자원 아카이브

### □ 수행기관

- 세종문화원, 지역학연구센터,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등

### □ 필요성 및 목적

- 지역에 산재한 문화자원의 소실을 방지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효율적인 수집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종합적인 기록, 정리를 통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함

### □ 사업내용

- 세종지역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하며, 세부적으로는 유형의 자료와 디지털 자료로 구분할 수 있음
- 세종문화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사이버향토박물관 누리집을 개설하여 운영을 통해 지역 향토자료를 e-콘텐츠로 서비스하고 있음
- 세종시 연동면에는 마을기록문화관을 조성하여 주민자치와 도시재생에 관한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으며, 세종시청사 지하 1층에는 세종시기록관을 두고 있어 이 같은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함



※ 출처: 세종시공식블로그  
**〈그림 4-12〉 마을기록문화관**



※ 출처: 세종문화원 누리집  
**〈그림 4-13〉 사이버향토박물관 누리집 화면**



## (2-3) 디지털 세종학 기반 마련

### □ 수행기관

- 세종문화원, 지역학연구센터,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등

### □ 필요성 및 목적

- 디지털 지역학 활동을 통해 뉴노멀 사회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기본 소양을 함양하고, 가치관을 만들어가며, 역량을 신장하기 위한 목적임
- 세종시민 누구나 세종시민 누구나 디지털 환경과 미디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디지털 미디어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문해력 강화

### □ 사업내용

- (1단계) 세종시문화재단-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세종신중년센터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디지털 뉴노멀사회 핵심역량 진단 및 선정을 위한 조사·연구
  - 디지털 리터러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
- (2단계) 파일럿(Pilot) 지역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업 공모
  - 영상·촬영·편집·미디어 분야, 신기술 융합 프로그램 등 디지털 지역학 콘텐츠 프로그램 선정 운영
- (3단계) 파일럿(Pilot) 프로그램 운영과 평가 - 우수 프로그램은 정규프로그램으로 선정
  - 관련 전문가 및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를 통해 정규 공모 프로그램 운영
- (4단계) 정규 프로그램 운영
  - 장기적인 사업운영 방향 계획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디지털 지역학 콘텐츠 운영

### (3-1) 초등학교 세종학 교육 강화

#### □ 수행기관

- 지역학연구센터, 학교·교육청 등

#### □ 필요성 및 목적

- 세종학의 실질적인 인식확산을 도모하고,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해 현재 초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화 교과과정을 강화하고자 함
- 지역화 교과과정의 강화를 통해 세종시에 스며든 이야기를 공유하고, 미래세대에게 전승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 사업내용

- 현재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과정을 조금 더 세분화하여 단기적으로는 3~6학년 학생들에게, 장기적으로는 전 학년에 맞춘 교과과정을 개발하고자 함
- 수업 내용에 대한 난이도를 조정하여 세부적인 강의 커리큘럼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자 함



〈그림 4-14〉 세종학 동영상 강의 오프닝 화면

### (3-2) 세종학 작은연구

#### □ 수행기관

- 지역학연구센터,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등

#### □ 필요성 및 목적

- 서울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작은연구’ 사업을 모티브로 하여 세종학에서의 ‘작은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세종학에서의 작은연구 지원사업은 시민 스스로 세종시 내 크고 작은 문제를 연구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세종시민의 소속감 및 정주의식을 강화할 수 있음

#### □ 사업내용

- 서울시의 경우처럼 기획주제와 자유주제로 나눌 수 있음
  - 기획주제의 경우 시정의 주요 현안과 이슈를 주제를 다룸
  - 자유주제의 경우 문화·경제·교통 등의 전반적인 주제를 다룸



〈그림 4-15〉 서울연구원 작은연구 사례



〈그림 4-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례

## (4-1) 시민세종학자 양성

### □ 수행기관

- 지역학연구센터,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등

### □ 필요성 및 목적

- 지역학 기반의 연구공동체는 지역에 관한 다양한 학문적, 실무적, 정책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집단의 성격을 가짐.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시민 들에게 지역학 전문지식의 전달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이재민 외, 2020)
- 세종학의 경우 우수한 커리큘럼을 갖춘 ‘시민 세종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시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관한 이해도가 증진되는 한편, 심화학습을 통해 지역학 전문가의 대열에 합류하여 활동할 수도 있게 됨

### □ 사업내용

- 시민들에게 세종학교육을 진행하고, 별도의 테스트 과정을 거침으로써 시민 세종학자 인증제도를 진행하고자 함
-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시민대학 프로그램으로서 집현전을 진행하고 있어, 이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소속감 및 정주의식 등 삶의 질 전반적인 제고를 꾀할 수 있음

## □ (사례)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시민대학 '집현전'

-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시민대학 집현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비전) 시민 모두가 가장 먼저 찾는 지식충전소
  - (정책목표) 평생교육 통합관리로 세종형 인재 양성
  - (인재상) 공동체적 삶을 위한 민주시민, 폭 넓은 소양을 함양한 교양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
  - (교육이념) 자기주도, 가치창출, 시민의식
- 특히 시민대학 집현전에서는 명예학위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최근 신중년 또는 노년층에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
  - 전임학사(학사)·부제학(석사)·대제학(박사) 등으로 분류하여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이를 달성할 시 학위증 교부·집현전 마일리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출처: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그림 4-17〉 2023년 대제학 심사

### 3절 세종학 실무를 위한 로드맵 제안

§ 세종학 진흥을 위한 실무적 관점에서 구현한 로드맵으로서 이 보다 정밀한 연구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제안하고자 하며, 향후 이와 같은 연구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함

#### 1) (단기) 기반조성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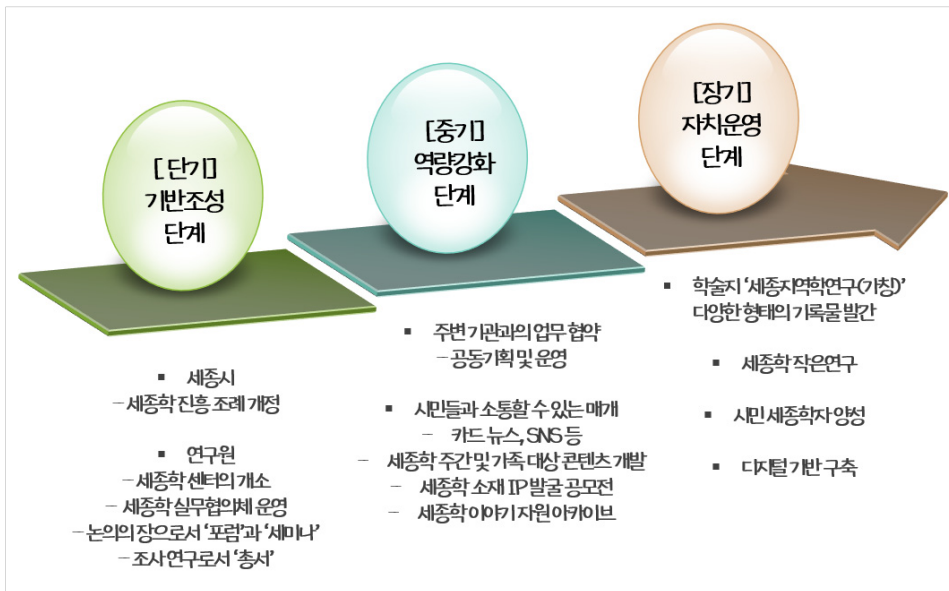
- 기반조성 단계에서는 현재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대전세종연구원 내 '지역학연구센터'가 대전과 세종으로 분리 개소를 예정함에 따라 이를 전제하고, 지역학 연구 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실천이 필요함
- 세종시 담당부서에서는 세종학센터 개소를 위한 조례의 개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대전세종연구원 세종학센터가 분리 개소된다면 세종학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진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진행되고 있는 포럼·세미나 등의 공론장, 총서 발간 등 조사 연구 등을 제안함

#### 2) (단기) 역량강화 단계

- 세종학 관련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실무적 역량을 강화하고, 각 기관이 가지는 특수성을 기반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여 세종학 활동의 실천을 제안함
  - 세종학 활동과 관련한 중간지원 조직의 공동 기획과 운영을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 세종학의 시민인식 확장을 위한 매개로서 카드뉴스, 이야기 자원 등 발굴과 활용 등을 제안하고자 함

### 3) (장기) 자치운영 단계

- 세종학 센터(가칭)를 중심으로 지역학 활동에 관한 기반구축, 역량강화가 이루어지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치운영 단계로서 진행을 제안함
-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연구형태인 '세종학 작은연구', 지역학 연구자 양성을 위한 '시민 세종학자' 양성 등을 제안하고자 함
- '세종지역학연구(가칭)'와 같은 학술지 발간을 통해 전문 연구자로서의 논의와 인력양성을 기대하고자 함



〈그림 4-18〉 세종학 실무를 위한 로드맵 제안





## 결론

1절 연구결과의 종합

2절 세종학 시민참여를 이루기 위한 정책 제안

5장



## 5장 결 론

### 1절 연구결과의 종합

#### 1.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학, 세종학

- 세종학진흥조례가 2018년 제정 이후, 자문기구로서 세종학진흥위원회, 전문거점 기관으로서 대전세종연구원 지역학연구센터 등이 만들어지면 세종시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학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하지만 다년간 세종학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인식이 부족하여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
- 이 같은 상황에서 연구는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에서 지역학이 지속가능성과 효능감을 이끌기 위해서는 시민 인식확산 및 참여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자 함
- 따라서 이 연구는 지역학 연구와 활동이 시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스토리텔링’과 같은 변주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고찰하고자 하였음

## 2. 지역학 분야에서 시민참여와 활동 유형

- 지역학은 지역정체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활동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주체의 능동적인 활동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학에서의 시민참여는 매우 중요함
- 지역학의 주요 속성으로 장소성·특수성·관계성·정체성·다양성 등으로 지역학의 성패요인을 결정하는 것은 관계성이라 할 수 있음
  - 관계성은 중앙정부-지역-시민의 관계 속성을 의미하며, 이러한 관계성이 효율적이며 유기적인 특성을 가질 때 비로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음
- 지역학 연구·활동의 유형으로 지역의 가치연구, 콘텐츠 생산·활용, 시민공유, 지역자료 플랫폼, 지역 거버넌스 등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지역의 가치연구) 연구보고서 및 총서 발간, 학술대회, 세미나
  - (콘텐츠 생산·활용) 지역문화콘텐츠, 콘텐츠 산업과 연관
  - (시민 공유)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
  - (지역자료 플랫폼) 아카이브 구축, 디지털 라키비움 등
  - (지역 거버넌스) 유관기관 네트워크
- 지역학에서의 시민참여 활동은 대개 연구와 활용 분야로 나타날 수 있음
  - 연구분야에서는 연구 확장을 통한 신진 연구자 양성, 지역 시민 연구모임 활성화, 지역학 네트워크 구축과 시민 연계,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학 아카이브 구축 등으로 나타남
  - 활용 분야에서는 지역학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민 연구자 위촉과 지역학 정책 개발 참여, 시민소통의 광장 등으로 나타남

### 3. 지역학 활용방안으로서 스토리텔링

- 이 연구에서는 지역학 소재가 시민 공감을 이끌기 위한 방안으로 스토리텔링을 논의하였음
- 스토리텔링은 1990년대 중반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하였고,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다양한 분야를 넘어 일상의 영역으로 확대가 됨
- 지역학에서의 스토리텔링은 이의 매개로서 지역과 결합하는 것으로서, 공간텍스트의 맥락분석 → 장소성 파악 → 테마 설정 및 이야기 부여 단계 → 공간구성 등으로 이루어짐

### 4. 시민 인식확산을 위한 지역학 활동 사례

- 지금까지의 국내 사례 중 많은 부분이 기록과 관련한 활동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음
  - 서울기록원, 공주학, 증평기록관, 춘천학 등에서 기록가 양성과정을 통해 많은 시민 기록가들이 나타나고 있었음
  -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 ‘작은연구 좋은 서울 지원사업’으로 시민들이 직접 연구하는 시스ٹেম을 구축함으로써 연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음
- 세종학 사례중에서는 온전히 지역학 사례라고 할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지역의 소재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활동을 해 왔음
  - 세종시 화가 장욱진, 일본인 독립운동가 가네코후미코의 서사를 활용한 연극콘텐츠, 지역에 깃들여 있는 설화를 활용하여 가무악극 등으로 구현하여 시민 인식 확대를 해왔음

## 5. 세종학, 시민 참여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될까?

### □ 세종학 스토리텔링의 추진과정 제안

- (1단계) 세종 지역 내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자원 발굴
- (2단계) 발굴된 지역학 소재 목록화
- (3단계) 스토리텔링 과정을 통한 이야기로의 변환
- (4단계)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통한 이야기의 아카이브화
- (5단계) 콘텐츠 구현을 통한 시민소통과 참여제고

### □ 세종학 스토리텔링 기본구상

- (비전과 목표) 세종학 시민 참여를 위한 기본구상 중 비전으로 [세종시 일상에서 누리는 '시민 세종학']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목표로서 지역학으로서 세종학, 시민공감 스토리텔링 으로 제안하고자 함
- 이를 수립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가족 대상 지역학 콘텐츠, 이야기 자원 활용 전략, 지역학으로서 세종학 연계 교육 전략, 지역학 인력양성 으로 제안하였으며, 전략별 세부사업은 아래와 같음
  - (가족 대상 지역학 콘텐츠) 세종학 주간 운영, 세종학 가족 대상 콘텐츠 개발
  - (이야기 자원 활용 전략) 세종학 소재(IP) 발굴 공모전, 이야기 자원 아카이브
  - (지역학 교육·연구) 초등학교 세종학 교육 강화, 세종학 작은연구
  - (지역학 인력 양성) 시민 세종학자 양성, 시민 세종학 프로그램

## 2절 세종학 시민참여를 이루기 위한 정책 제안

### 1. 세종학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현

- 세종학 시민참여를 이루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세종학 생태계가 튼튼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을 단기 과제로 제안하고자 함
  - (조례 개정) 대전세종연구원 지역학연구센터가 2024년에 세종학센터·대전학센터로 분리될 예정이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함
  - (예산 증액)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세종학 관련 업무를 출자 출현 금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효율적 운영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2. 세종학 중장기 계획 연구 수행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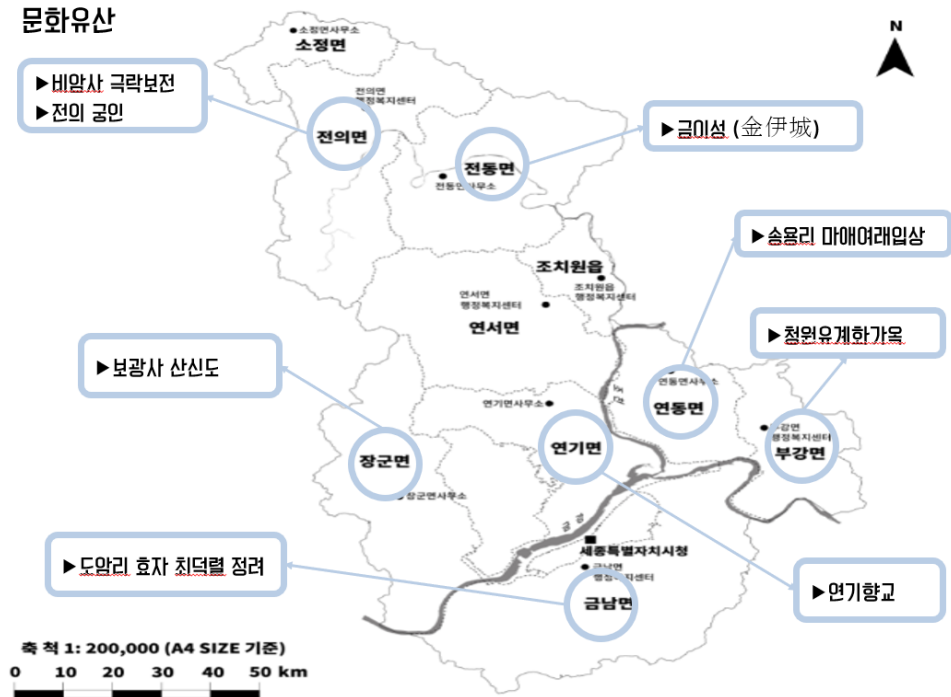
- 2024년 분리될 세종학센터의 로드맵을 그리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 세종학 유관기관의 거점역학과 조사·연구, 시민소통 활동이 기대되는 세종학센터의 비전과 전략, 전략별 세부과제, 로드맵 등의 내용을 담은 연구과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이해준, 「지역학의 범주와 향후 연구과제-지역학 연구 관점에서 보는 안동학」, 『안동학연구』3,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2004
- 정정숙,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 이해준, 「공주학의 가능성과 기대」, 『공주학 강좌』,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 2015
- 오영교, 「한국학과 국내 지역학 : 연구방법론의 모방과 변주」, 『지방사와 지방문화』, 역사문화학회, 2019
- 고순영, 「공주학연구원의 운영과 역할에 관한 사례」, 『나주학 정책포럼 학술자료집』, 나주시, 2020
- 고순영, 「지역학아카이브 구축 동향과 과제」, 『제2회 파주학 포럼-파주학 아카이브 구축 방향과 비전 학술세미나 자료집』, 파주시·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2021
- 현수진, 「충청도 ‘지역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충청학과 충청문화』29,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22
- 이재민 외, 「지역학으로서 ‘세종학’ 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 『대전세종학정책연구 2020-53』, 대전세종연구원, 2020
- 이재민 외, 「지역학으로서 세종학 비전체계와 추진전략 고찰」, 『대전세종학정책연구 2022-63』, 대전세종연구원, 2022



## [부록 1] 세종학 소재의 이야기 자원 고찰



〈그림 부록1-1〉 세종시 문화유산 이야기 자원

### 1. 문화유산

#### 1) 전의면

##### (1) 비암사 극락보전

- 비암사 극락보전은 조선후기에 창건된 사찰건물로 전의면 비암사길 137에 위치하고 있음
- 본래 충남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나,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행정구역 개편으로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유형문화재로 변경되었으며 2021년 보물로 승격되었음

- 극락보전뿐만 아니라 비암사에는 통일신라 후기의 석탑 조성 수법을 잘 보여주는 삼층석탑과 영산회 괘불탱화, 소조아미타여래좌상등의 문화유산이 함께 있음

## (2) 전의 궁인

- 무형문화재에 등재되어있는 전의 궁인은 전통 활 만드는 기술을 보유 하였으며 전통 활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장인
- 전의면에 사재를 들여 동산정이라는 활터를 만들고 전의 각국을 제작 하면서 수제자를 길렀음
- 전통적인 공예기술로서 기술을 보호, 전승하기위해 무형문화재 제43호 로 지정
- 현재 주장음 장인은 각궁 기술을 계승하기 위해 제자에게 기술을 전승

## 2) 전동면 - 금이성

- 금이성은 전동면 송성리 산87-4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증동국여지승 람』에서 금이산성을 운주산 남성으로도 불렀다고 소개
- 성벽은 벽돌처럼 납작하게 잘 다듬은 성돌을 이용하여 한 단 한 단 수 평을 맞추면서 쌓아 올림
- 『삼국사기』에서는 백제의 금현성으로 불렀는데, 금현성은 고문헌을 통 해 6세기 중반 삼국이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놓고 다 튼 중요한 전장, 전략 요충지였음

## 3) 부강면 - 청원유계화가옥

- 부강면 용포동촌길43-19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선 고종에 부강리 마을 이 내려다보이는 위치에 자리 잡은 전통 한옥으로 우리나라 중부지방 의 전형적인 양반 주택
- 안채의 정면은 남부지방의 방식이 가미된 형태로 전체적으로 조선 시 대의 중부지방 사대부 집의 주택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음

#### 4) 연동면- 송용리 마애여래입상

- 연동면 송용리 99-3번지에 위치한 마애여래입상은 광배와 불상을 하나의 돌에 조각하였다는 특징이 있음
- 일부 훼손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수인이나 옷주름 표현이 간략화 되고 도식화된 부분도 있어 고려시대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됨
- 마애여래입상의 얼굴 윗부분이 파손되었는데, 큰 뱀이 불상 위에 올라앉아 맑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뱀을 죽이면서 일부가 함께 떨어져 나갔다는 전설이 전해짐

#### 5) 연기면 - 연기향교

- 연기면 교촌3길13에 위치한 연기향교는 조선시대 관립 교육기관으로 1416년 현유 위패 봉안, 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창건
- 연기군 서쪽 끝에 있던 향교를 1887년 현재 위치로 이전
- 현재 연주회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 문화적 교류를 통해 연기향교를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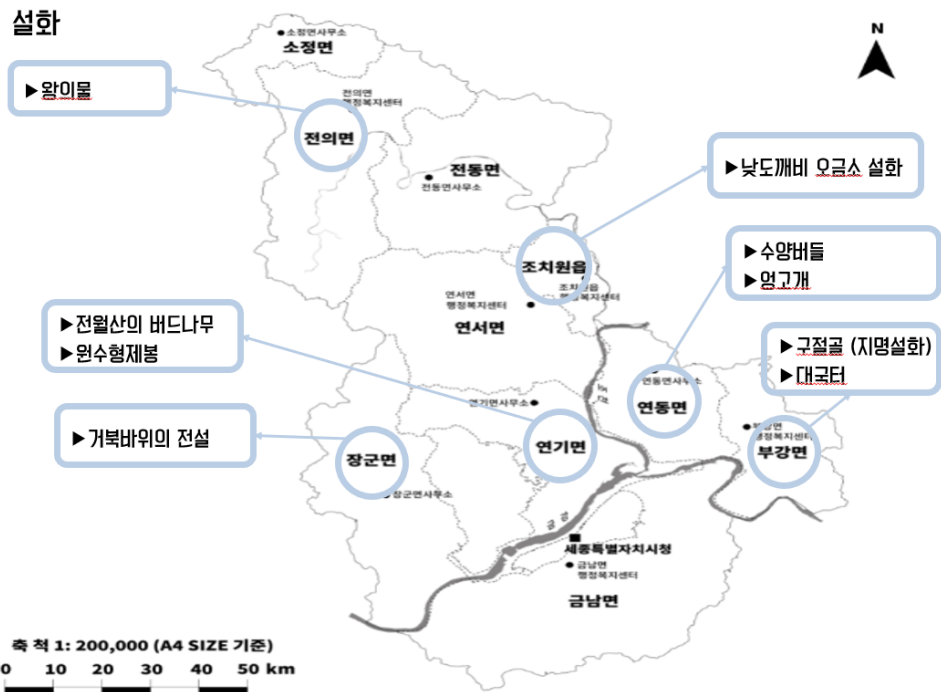
#### 6) 장군면 - 보광사 산신도

- 장군면 은용리 보광사에 소장된 산신도는 일제강점기 산신도이며 공주 보광사 산신도라는 이칭 또는 별칭을 보유함
- 장군 보광사 산신도는 산신을 묘사한 불화로 화면 왼쪽 소나무 아래에 산신과 호랑이, 공양물을 든 동자를 배치
- 2007년 9월 20일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97호 '공주 보광사 산신도'로 지정하였으며 2012년 12월31일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자료 제11호 '장군 보광사 산신도'로 재지정 되었음

## 7) 금남면 - 도암리 효자 최덕렬 정려

- 전동면 송성리 산87-4에 위치한 효자 최덕렬 정려는 정면 1칸, 측면 1칸, 맞배지붕으로 구성
- 최덕렬은 사평공의 7세손으로, 효성과 우애가 남달라 어려서부터 모친이 병이 나자 정성껏 간호하였으며, 돌아가시려 하자 손을 베어 피를 드려 3일간 목숨을 연장시켰을 정도로 효심이 깊었음
- 효심을 기리기 위해 1996년 후손들이 도암리 마을회관 뒤쪽에 효행실적비와 정문을 세워 놓았음

## 2. 설화



〈그림 부록1-2〉 세종시 설화 이야기 자원

## 1) 전의면 - 왕의 물 초정

- 연기군 전의면 관정리에 있는 약수로 왕의 물이라 부름
- 세종이 한글을 연구하다 피로가 겹쳐 안질이 생기자 그 안질을 고치기 위해 초정에 머물렀고 1년여의 치료 끝에 세종의 눈병이 완쾌되었고, 세종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큰 상을 내렸으며, 병을 고친 전의초수는 왕의 물이라 부르게 됨

## 2) 조치원읍 - 낮도깨비 오금소 설화

- 오금소 설화는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서 오금소와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 오금소의 한은 오금이러는 노비의 딸이 고약한 주인에게 부모를 잃고 겁탈당하자 늪에 빠져 죽었다는 지소설화
- 오금소의 한은 주인의 횡포로 억울하게 죽은 노비 부녀의 한을 주요 모티브로 하며, 딸인 오금이 빠져 죽은 늪의 유래담을 다룸
- 늪은 1925년 이전까지 존재하였지만 조치원의 신시장과 구시장이 통합 되면서 매몰되어 없어졌다고 함
- 1988년 연기군지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연기군지』와 2012년 조치원읍지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조치원읍지』에 수록

## 3) 부강면

### (1) 구절골(지명설화)

- 부강면 문곡리의 ‘구절골’이라는 지명이 구절사라는 절과 관련하여 유래되었다는 지명설화
- 9개의 절이 세워졌다 하여 구절골이라 불렀다고 함
- 절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중들이 서로 불상을 뺏고 빼앗는 이야기를 모티브로 활용

## (2) 대국터

- 대국터는 신선들이 바둑을 둔 곳이며, 연개소문이 고구려의 도움으로 여겨 대국지라 불리었다는 지명 유래담
- 연개소문의 행적을 지명 유래와 연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삼국시대 당시 중요한 격전지였음을 나타냄

## 4) 연동면

### (1) 내판의 수양버들

- 수양버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오랑캐에게 약탈 당하면서도 꾀꾀하게 살아온 내판 지역 아낙네들이 전사한 남편을 따라 자결하자 무덤 옆에서 자라났다는 설화
- 내판 지역에 과부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병자호란 때 남편들이 전사하면서 유래
- 외세의 침략과 저항을 나타내며 설화와 남아 있는 자연물을 통하여 당시의 아픔을 두고두고 새기게 해줌

### (2) 영고개 전설

- 영고개는 임진왜란 때 전사한 남편의 원수를 갚고자 왜장 여덟 명이 죽이고 살해된 아내에 관한 치령설화
- 아내가 살해당한 고개에서 영영 우는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와 사람들이 이를 아내의 한 맺힌 울음소리라 여겼다고 함

## 5) 연기면

### (1) 전월산의 버드나무

- 전월산의 버드나무는 전월산의 용천에서 승천하던 이무기가 산모에게 보여 승천에 실패하고 땅에 떨어져서 버드나무로 환생하였다는 전설

## (2) 원수형제봉

- 원수형제봉은 연기면 원수산에 있는 형제봉이 옥심 많은 형과 아우의 다툼으로 인하여 봉우리가 생겨났다는 지명 유래담
- 현재 원수산 형제봉은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에 속해 있지만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기 이전에는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갈운리에 속했음

## 6) 장군면 - 거북바위의 전설과 지명

- 거북바위는 1970년대 새마을 운동 이전인 장군면 송학리 창말 앞에 있던 거북을 닮은 바위에 관하여 전해오는 이야기
- 용왕의 명을 받아 명당을 찾으러 육지에 올라온 거북을 소재로 한 풍수담이자 암석유래담
- 2016년 장군면지발간추진위원회에서 발행한 「장군면지」에 실려 있음

## [부록 2] 지역 소재 연극 줄거리<sup>2)</sup>

### ■ 길 위의 자화상

화가라는 꿈을 꾸며 달려온 유영.

더 이상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며 그림을 포기하기로 한다. 그림을 포기하고 미술관 알바를 시작하려 미술관에 찾아간 유영 앞에 이상한 이들이 나타나 유영을 납치해간다.

납치되어 간 곳은 현실과 꿈의 사이, 그 어디쯤이다.

유영을 납치한 소년, 소녀, 신사는 이곳이 유영의 캔버스 안이며 상처가 아무는 동안만 머물 수 있다는 아리송한 말을 한다. 그때, 갑자기 의문은 여인이 나타나고 이들은 자신들이 화가 장욱진의 페르소나라고 주장한다. 세상에 인정받는 장욱진의 그림이 부러웠던 유영은 자신에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 미술관의 중앙구역으로 페르소나들이 그려진 그림의 위치를 옮겨주겠다는 제안을 한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 페르소나들은 유영에게 각자만의 방식으로 다시 그림을 그릴 계기를 만들어준다. 소년은 장욱진은 자신을 통해 뭐든 될 수 있었다며 유영이 처음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렸을 때의 자유를 찾게 해준다. 유영이 자유를 만끽하던 순간 여인이 나타나 본인은 장욱진의 아내라고 말하며 장욱진이 얼마나 그림을 사랑했고 여인은 그림을 그리는 장욱진을 사랑했는지를 이야기한다. 유영에게 다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기꺼이 희생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을 전하고 유영은 자신의 과거의 아팠던 기억들을 떠올린다. 과거의 기억으로 괴로워하는 유영에게 소녀가 나타나 모든 것을 버리고 완벽한 고독을 선택하기를 제안한다.

---

2) 극단 세종(송아람 대표) 제공



제안을 받아들인 유영은 본인의 캔버스를 찢어버리고 휘날리는 종이들 사이에서 정신을 잃는다. 홀로 남은 유영에게 장욱진의 자화상 속 신사가 나타나 술 한잔 청한다. 신사는 유영에게 소모해가는 인생을 어떻게 살지는 본인이 정하는 것이며, 무엇을 어떻게 그리는 것보다는 내가 그림을 그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는 위로로 건넨다. 메시지를 남긴다.

신사(장욱진)의 위로로 어둠 속에서 본인의 길을 견게 되는 유영은 현실로 돌아와 꿈을 계속 꾸기로 결심하며 붓을 든다.

## ■ 스물셋, 박문자

가네코 후미코, 그녀의 일생 중 가장 조명받은 시기는 1919년 이후 본격적인 그녀의 행보가 시작된 이후일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도대체 왜 조선인 동지들과 뜻을 함께 했을까.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본의 권력자들과 맞서 싸웠을까. 그녀의 일생 중 가장 조명받지 못했지만, 어쩌면 그녀에게 가장 중요했던 시기.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아무도 알아보려 하지 않았던 조선에서의 7년. <스물셋, 박문자>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된다.

스물셋의 박문자.

그녀는 옥중에서 본인의 인생에 대한 옥중일기를 작성하기 시작한다.

아홉 살의 박문자.

그녀는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아홉 살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온다. 일본에서 오는 다른 설레는 인생을 꿈꾸며 온 한국도 호락호락 하지 않다. 한국의 고모집도 본인이 그리던 곳이 아니었으며, 고모와 고모부에게 쥐 죽은 듯이 살라는 경고를 받는다.

처음 간 소학교에서 황국신민의 맹세가 이루어지고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 사이에서 문자는 서연월과 구연자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고 처음 생긴 친구에 대한 들뜬 마음으로 집에 와 일기를 작성한다. 일기를 본 고모는 일기장을 찢어버리며 아홉 살의 문자를 학대하고, 이를 못 견디던 문자는 기차에 뛰어들기 위해 뛰쳐나간다.

기차에 뛰어들던 문자를 연자가 구해준다. 연자와 아옹다옹하며 길을 걷던 중 조선인 경찰에게 무자비하게 맞고 있는 조선인 서연월을 발견하게 되고, 연자와 문자가 힘을 합쳐 구해준다. 이를 계기로 셋은 연자의 아지트에 가서 본인들의 가정사를 이야기하며 우정을 쌓게 된다. 그리고 아무도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핍박받지 않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고 다짐한다.

집으로 돌아간 문자는 곧 3.1운동이 일어날 거라는 소식을 고모와 고모부에게 듣게 되고 이를 즉시 연자에게 알린다. 3.1운동에 앞장선 연자는 일본인 순사의 총에 맞아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죽는다. 연자가 죽던 마지막 순간, 연자는 문자에게 태극기를 건네준다.

다시 스물셋의 박문자.

재판장에서 조국을 배신하고 박열과 함께 천황을 암살하려한 대역죄의 명목으로 박문자의 비공식 사형이 진행되고, 박문자는 자신의 이름 세 글자를 똑똑히 기억해두라며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 [부록 3] 퓨전국악그룹 풍류의 작품3)

### ■ 〈꽃숨〉 : 전의면 출신 피리명인 ‘김준현’을 기린 작품

〈1절〉

연분홍 꽃비 내리는 날에  
피리부는 저 소년아  
눈빛 고운 사람들 미소지어요

고요히 흐르는 저 강물아  
오늘밤 환하게 달빛 비추면  
내일 아침 태양도 반겨주겠지

〈후렴〉

저 코카서스 산맥도 나이가가라  
폭포도  
당신의 터질듯한 입술 한번 스치면  
사랑 한번 거는 바람이 되지요  
행복 싹틔우는 하늘소리가 되지요  
오늘밤 잊었던 님 찾아 오면  
아 니나노 나나라 나래란 시루  
아 니나노 나나라 나래란 시루

〈2절〉

버들가지 꺾어 손 풀고  
꽃숨 한번 고르면  
눈빛 고운 사람들 노래불러요

위대함을 모르는 나뭇가지에  
새들이 날아와 노래부르면  
내일 아침 태양도 반겨주겠지



3) 퓨전국악그룹 풍류(조성환 대표) 제공

## ■ 〈별리〉 : 세종대왕과 안락갑의 사랑이야기

〈1절〉

아침 구름 너머 무지개 한 쌍  
저녁 빗물 사이로 비친 너의 눈  
빈 가마 뉘 잃고 헤매이다가  
깊은 밤 춤추는 별빛 하나 보았네

〈2절〉

안락갑아 안락갑아 가지 말아라  
발 디더 가마채 어루고  
비단내 노을 사위로 삼아  
밝은 빛 쫓아서 가보자  
안락갑아 가지 말아라

금빛 개구리 짝 찾아 노니는 날  
당신은 노랑부리저어새로 왔지요  
한밤중 감로수에 마음발 같고  
이슬머금은 함박꽃 한송이 피었지요

님이시여 님이시여!  
합강에 달 놓고  
버들가지 서리꽃 피면  
난 줄 알고 오시어요  
님은 영원한 나의 왕이십니다

〈후렴〉

아아 안락갑아 안락갑아 가지 말아라  
발 디더 가마채 어루고  
비단내 노을 사위로 삼자  
안락갑아 가지 말아라

님이시여 님이시여!  
합강에 달 놓고  
버들가지 서리꽃 피면  
난 줄 알고 오시어요  
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 〈세호락〉 : 세종+호수+여민락

〈1절〉

바이칼 여신이어  
푸른 숨결로 생명을 피우고  
대지에 입맞추는 이여  
마르지 않는 샘물아  
무슨 꿈을 안고 무슨 사연 신고  
비단강 되어 흐르는가  
별나비 오지 않는 유혹의 신목이어  
무슨 설레임 안고  
서리꽃으로 피었는가

〈2절〉

바이칼 여신이어  
그대의 숨결은 내 생명의 시원  
하늘수레 타고 오네  
천년 잠에서 깨어나  
비바람 구름 뚫고 푸른 창공  
오르는날  
푸른 진주 하나 주리라

보라 저 찬란한 여민락의 등불      산천 정령들이여  
하늘평상 깔아 놓고 거문고청 치어라      이땅 산자들이여  
아 아 슬 기둥 뜰동, 스르징 뜰!      노래 하고 춤추어라  
새 땅 한번 디더 보세      새날 올려가 태동한다  
새 하늘 한번 날아 보세

(후렴)

보라 저 찬란한 여민락의 등불  
하늘평상 깔아 놓고 거문고청 치어라  
아 아 슬 기둥 뜰동, 스르징 뜰!  
새 땅 한번 디더 보세  
새 하늘 한번 날아 보세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37(문지동)  
TEL. 042-530-3500 FAX. 042-530-3528  
[www.dsi.re.kr](http://www.dsi.re.kr)

ISBN 979-11-6075-426-1 93350